아트엘-피랩 크리에이션
리서치 교류 프로젝트

아트엘-피랩 크리에이션
리서치 교류 프로젝트

목차

4 서문
다양한 언어의 마주함 - 노경애

6 프랑스 마르세유에서의 1차 리서치 교류
8 언어 이야기 - 노경애와 모든 참여예술가
16 의태어 - 해미 클레멘세비츠
22 듣기의 방법 - 위성희
28 소리 언어의 글자화 - 김은설
34 교차 조각 - 마린 꽁뜨
38 소통의 필터들 - 아리엘 홀츠
42 형태와 기호, 경험의 변형 - 프랑카 트라바토

48 한국 서울에서의 2차 리서치 교류
50 언어와 심상 - 해미 클레멘세비츠
54 위대한 상징성_ 프랑카 트로바토
58 한국 수어의 원리 - 고인경
62 시각적으로 그리기 - 김은설
68 수어 쓰기, 하나의 유토피아? - 레앙드레 쉐보
76 언어의 재발견 - 박주영
82 감각 전달 - 최나래
88 오역, 오해, 사고 - 아리엘 홀츠
96 은폐하는 말하기_ 위성희
102 우리 사이의 양분 집합체 - 로이스 라갱

108 마르세유 현장 탐방

다양한 언어의 마주함

노경애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듣는 어려움의 사람, 보는 어려움의 사람, 듣고 보는 사람에게,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각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듣는가 질문하며 아트엘은 2018년부터 〈듣다〉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청각장애를 ‘듣는 어려움’으로, ‘시각장애’를 ‘보는 어려움’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듣는 어려움이 보는 감각을 통해 듣게 하고, 보는 어려움은 더 섬세한 듣기를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다양한 몸의 감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작업을 통해 ‘듣는다’는 행위를 새롭게 바라보고, 소리를 시각화하거나 몸으로 체화하며 새로운 방법의 듣기를 시도해 왔다.

아트엘(artEL)과 피랩 크리에이션(PiLAB CRÉATION)의 만남은 2021년 〈듣다: 소리와 언어〉에서 시작되었다. 프랑스에서 작업하던 해미 클레멘세비츠(Rémi Klemensiewicz) 작가가 당시 팬데믹으로 한국에 올 수 없어 프랑스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었다. 우리는 해미 작가에게 프랑스에서 작업하며 프랑스 청각장애 예술가와의 협업을 권유했고, 이를 계기로 피랩 크리에이션을 만나게 되었다.

청각장애와 비장애 학생들이 함께 작업하는 〈피랩 크리에이션〉의 모습에서 아트엘의 〈듣다〉 프로젝트와 많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서문

있었다. 2021년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작업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이것을 계기로 2022년 국제교류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아트엘 - 피랩 크리에이션 리서치 교류 프로젝트에는 다양한 언어와 문자들이 존재한다. 한국 음성언어, 프랑스 음성언어, 한국 청각장애 예술가들의 구화, 프랑스 청각장애 예술가들의 수어가 그것이다. 그리고 통역을 위해 한국어-프랑스어 음성통역, 한국청각장애 예술가들을 위한 문자통역, 프랑스 청각장애 예술가들을 위한 수어통역, 정말 다양한 언어가 오고 갔다. 이러한 복잡한 구조는 우리로 하여금 ‘해석, 번역, 오류, 언어의 다의성’에 대해 생각하게 했고, ‘번역될 수 없는 언어’들도 자연스레 떠올랐다. 그러면서 개인적 언어, 모국어, 친밀한 언어, 언어의 음성적 특징과 시각형태, 시각적 언어, 언어습관, 수어의 쓰기, 은폐하는 말하기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작업했다.

이 프로젝트는 프랑스의 마르세유와 한국의 서울의 두 도시를 오가며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각 예술가들의 작업을 향한 호기심, 서로의 언어를 향한 궁금증, 문화적 배경의 닮음과 다름을 통해 다양한 시선과 경험이 마주하는 시간이었다.

프랑스 마르세유에서의
1차 리서치 교류

일정

2023년 10월 17일(월) - 10월 22일(토)

장소

프랑스 마르세유 미술대학 피랩크레이션

참여예술가(프랑스)

미겔-앙헬 칸차리히노조사(Miguel-Angel Cancharihinojosa),
레앙드레 쉐보(Léandre Chevreau), 최나래(Narae Choi),
마린 꽁뜨(Marine Comte), 아리엘 홀츠(Arielle Hotlz),
박지은(Jieun Park), 로이스 라갱(Loïs Raguin), 신혜지(Hyeji Shin)

참여예술가(한국)

김은설, 박주영, 위성희, 해미 클레멘세비츠(Rémi Klemensiewicz)

한국어-프랑스어 통역

편유정

문자통역

황근영

프랑스 수어통역

나타샤 안드리스(Natacha Andreis), 가브리엘 엔젤(Gabriel Angel),
아나이스 가부(Anaïs Gabu), 파비엔 기라망(Fabienne Guiramand),
캐롤 구트만(Carole Gutman), 마에바 리체통(Maeva Richeton),
크리스틴 루이(Christine Louis)

언어 이야기

노경애와
모든 참여예술가

이번 프로젝트에는 수어, 구어, 음성언어(한국어, 프랑스어)의 다양한 언어들이 있다. 참여하는 사람마다 사용하는 글자나 언어가 조금씩 다르다. 프로젝트의 첫 시작으로 각 사람의 언어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었다. 소통, 오해, 번역, 말투, 시각 언어, 언어 이전의 언어 등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다.

중간언어

저는 여섯 살 여자아이를 키워요.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는 그 아이와만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아이의 발달 단계에 따라 언어습관이 점점 바뀌어요. 우리 둘만의 언어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빠꼬'는 우리에게는 눈, 코, 입이 있어서 사람 얼굴처럼 보이는 사물들을 의미해요. '빠꼬'는 한국어로 존재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짭쫘'는 입으로 빨아도 되는 것이라는 의미해요. 역시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죠. 아이와 저, 두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의 구획이 일반사회랑 달라요. 그 언어들은 아이가 자라면서 지금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언어를 약속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느슨한 약속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둘만의 아주 작은 사회의 언어였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것을 중간언어라고 불러요.

언어의 유희

저는 형제들과 함께 새로운 단어를 발명하고 특정 단어의 의미를 바꾸는 것을 좋아했어요. 예를 들어 'officier'는 비교적 추상적인 동사로 상당히 특정한 영역에서만 사용되는데, 일상적인 상황에서 이 단어의 의미를 전환하거나 확장하는 것이 주된 아이디어예요. 예를 들어, '먹다' 대신 '음식을 'officier' 한다'라고 하면, 이상하면서도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 만들어져요. 이런 종류의 단어 유희는 아주 어릴 때부터 매우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계속되어 왔어요.

가끔 번역을 하면 그 완전히 의미가 전달되지 않아 흥미롭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면 재미가 없죠. 수어와 음성언어는 다르기 때문에 언어적 유희를 음성언어에서 수어로 또는 수어에서 음성언어로 번역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요. 음성언어와 수어에 해당되는 언어적 유희가 다르기 때문에, 두 언어의 유희를 함께 공감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언어유희에는 소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수어에는 소리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쉬운 것 같아요.

줄임말

한국에서 제가 늦게 깨닳은 것이 있는데 줄임말이에요. 예를 들어 '패션피플=패피', '반갑습니다=방가방가' 이런 것들에요. 프랑스에도 이런 줄인말을 쓰나요?

네. S'il te plait -〉 stp 부탁해요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말로 줄이진 않고 글로는 줄여서 써요. Aujourd'hui -〉 ajd

죽은 언어

저는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죽은 언어에 대해 생각했어요. 언어로서의 기능을 잃은 언어요. 제가 단짝 친구랑 만 쓰던 언어가 있어요. 다 명사화해서 말하는 거예요.

소통의 필터

어떻게 하면 언어가 번역의 과정을 거쳐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될까요? 그것이 잘 전달되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는 말이 번역을 거쳐 다른 사람들에게 도착하는 과정이요.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행위잖아요.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언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의미는 변화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바뀔 수도 있고요. 그것이 전달되는 과정이 대화죠. 사람들 사이의 다양한 언어에서 여러 필터를 걸치면서 어떻게 단어가 전달되고 변화되고 하는지에 대한 것이 흥미로워요.

번역

제 생각에는 정확한 번역이나 전달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데, 영어를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가끔은 프랑스어로 잘 전달이 되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해요. 최대한 의미에 맞게 전달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번역이나 통역을 할 때, 정확한 전달이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문화나 나라에 따라 의미를 유동성 있게 바꾸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큰 논쟁이 항상 있어요.

이해와 오해

저는 이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 번역과 통역의 어려움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 안에 한국어와 프랑스어 사이, 음성언어와 수어 사이, 문자통역과 수어통역 사이에 이해와 오해의 현상이 계속 존재할 것 같아요. 저는 오해가 잘못된 것만이 아니라 소통의 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작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큰 가능성이라고 생각해요.

다르거나 달라지는 언어

완벽한 언어는 없다고 생각해요. 언어는 소통을 통해서 그리고 시대에 따라 변하고 움직이며 발전하죠, 예를 들면, '붐 BOOM!'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끓어오른다'는 의미예요. 이 단어는 소리의 느낌으로도 '붐 BOOM!'이죠. 폭발을 표현할 때도 우리는 '붐 BOOM!'이라고 해요.

사람에 따라 언어가 대체될 수도 있고, 각 사람의 국적이나 문화에 따라서 다른 의미들을 가지기도 하죠. 수어의 의미도 나라마다 달라요. 프랑스에서는 '물'은 수도꼭지 모양에서 인용했어요. 하지만 어떤 나라의 수어에서 '물'이라는 단어는 '우물에서 물을 긷는 행위'를 닮았어요. 각 나라마다 수어의 의미가 달라요.

진동으로 배우는 언어

저는 어렸을 때 구화를 배우고, 대학 졸업 후 수어를 뒤늦게 배웠어요. 구화는 입모양을 보기 때문에 소리 없이도 소통이 가능해요. 저는 수어, 구화, 음성언어를 사용해요.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아이가 아니라면 농인 학교보다는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는 곳에서 교육받기를 권유했어요. 저는 언어를 배울 때 가장 기초적인 '아야오요우유'부터 배웠어요. 몸의 진동과 입 모양, 그리고 말할 때 나는 숨소리를 통해 배웠어요. 그래서 몸의 진동을 익혔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제 몸이 악기가 된 것 같아요. 진동이 울림통이 되기 때문에 제 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에도 진동이 느껴져요.

언어 색깔

사람이 말을 했을 때 언어 색깔이 있어요. 언어 습관이요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언어 습관이나 행동을 관찰하는 편이에요. 저는 마치 컴퓨터처럼 상대방의 정보들을 저장해요. 데이터를 모으는 것처럼요. 그것들이 쌓여서 결국 그것이 저에게도 습관이 돼요. 그런데도 100프로는 어려워요. 충분한 경험과 많은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언어의 이야기 속에서 기억되거나 연상된 단어들

아이디어를) 영업으로 발전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면, 헤어+성희+은설
작가님이 우리에게 리서치를
제안해주심인 것 처럼....

의태어

LES IDÉOPHONES

해미 클레멘세비츠
Rémi Klemensiewicz

마르세유에서 진행된 리서치 교류 프로젝트를 위해 나는 의태어라는 개념을 중심 주제로 준비했다. 한국어에는 의태어가 아주 많지만, 프랑스어에는 의태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 주제를 이번 리서치에 다루기로 한데는 여러 이유가 있었다. 의태어 개념은 한국어와 프랑스어 사이의 다른 점을 확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언어의 표현력에 대해 보다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었다.

본격적으로 이 주제를 다루기 전에, 나는 언어학의 몇 가지 기본 개념들 중 특히 기호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과정은 기호가 가리키는 생각이나 대상과 맺는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기 위해서였다. 구두 기호, 상징, 몸짓 기호와 같은 기호들의 다양성은 항상 그것이 가리키는 것과 특정한 관계를 내포한다. 이와 같은 주제로, 그림 문자(그림), 표의문자(상징), 그리고 표음문자(글자, 알파벳)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글쓰기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우리는 기호와 의미 사이의 일치에 대해 수어의 경우와 비교해서 생각해보았다.

이 도입 부분이 끝나고, 의태어의 개념에 대한 발표가 시작되었다. 의성어와는 반대로 의태어는 시각이나 촉각과 같은 감각적인 느낌이나 움직임, 심리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기능을 가진 단어들이다. 의태어는 의성어처럼 소리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아닌 감각을 목소리로 혹은 글자로 표현한다. 우리는 먼저 여러 다른 언어들의 의성어를 비교했고, 동사나 명사를 생성하는 의성어에 대해 알아보았다.

프랑스어 예:
crac 딱 – craquer 딱 하는 소리가 나다 – craquement 딱 하는 소리

이것은 소리를 단어로 옮겨 적는 다양한 방법들이 언어마다 다양한 표현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한국어에서 의성어가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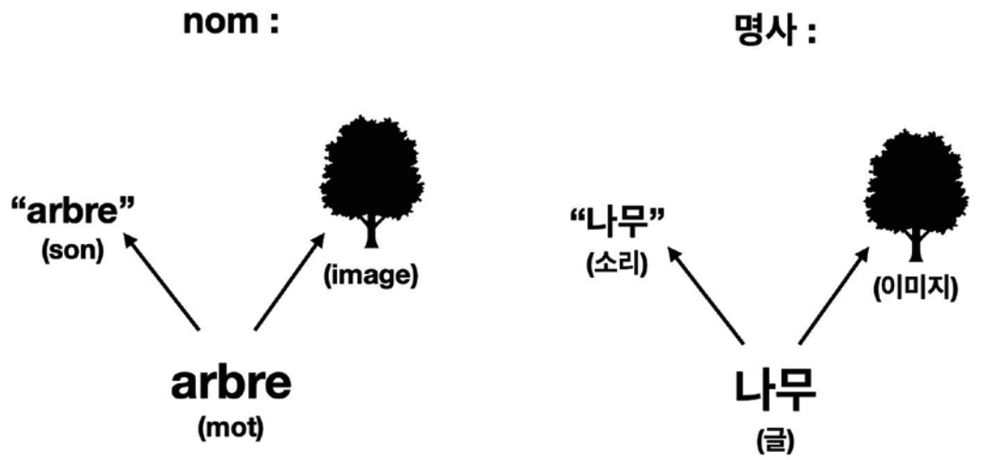
떻게 구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어에는 의태어가 많지는 않지만, 프랑스어에서 의태어의 구체적인 예를 찾아보고, 한국어의 의태어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한국어 의태어에 대한 이 발표는 한국어가 가지는 표현력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었다. 예를 들어'반짝반짝'은 빛나거나 깜박이는 시각적 감각을 표현하며, '보송보송'은 어떤 사물이 건조하면서도 부드러운 형상을 말한다. 한국어의 의태어는 반복적이고 리듬감 있어 아주 흥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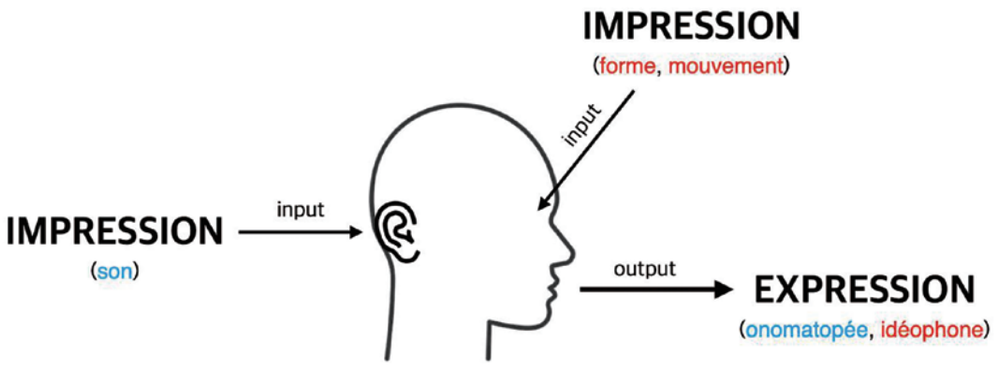
의태어에 대한 설명 후, 참여예술가들에게 즉흥적으로 의태어를 만들어 보는 것을 제안했다.

프랑스어, 영어 혹은 한국어와 비슷한 단어를 만들 수도 있었고 수어를 사용해 새로운 의태어를 만들 수도 있었다. 이 작업은 구어의 논리와 수어의 논리에서 보이는 큰 차이점을 재차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참여예술가들은 각자가 만든 의태어를 소개하고 우리는 단어 혹은 수어로 된 그 의태어가 어떤 의미에 상응하는지 맞히는 시간을 가졌고 이어서 의태어를 제시한 사람이 그것을 어떤 의미로 만들었는지 발표했다.

이번 발표와 활동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언어를 표현적으로 만들어 주는 특수성을 넘어 보편적인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한편, 주어진 언어의 구체적이고 특정한 소리의 차원에 대해 알아보고, 현실 세계를 언어로 표현하거나 옮겨 적을 수 있게 배치하는 도구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다. 즉, 말이나 글, 혹은 기호(수어)에서 언어가 근본적으로 가지는 표현적인 차원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언어 어휘와는 달리 의태어는 문법적이거나 서술적인 기능을 하지 않는다. 의태어는 먼저 어떤 감각을 있는 그대로 포착하거나 어떤 현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사용된다. 이러한 이유로 의태어는 언어의 표현력에 대한 질문과 실험에 아주 이상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다.





expression → signe
“Bonjour”
“안녕하세요”
“Hello”
verbal / scriptural
symbole
Roland
NATACHA
MAEVA

듣기의 방법

위성희

나는 외국어를 못한다. 외국에 가서 말을 할 때면, 하고 싶은 말보다 그 말을 하려고 분투하는 나만 선명하게 남는다. 그러다 보면 애초에 하고 싶은 말이라는 것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사실 외국어 문제만은 아니다. 모국어를 쓰더라도 듣는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하려는 말의 내용을 슬쩍 변경하거나 입을 다물어 버리기도 한다. 가끔 나도 모르게 말이 술술 나와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에는 내 앞에는 서툴고 느린 내 말을 기다려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마르세유에서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하며 자기소개를 할 때 이런 말을 덧붙였다. '듣는 사람이 내가 할 말을 결정해 버려요.'

이 프로젝트에서 나는 한국어 음성어를 쓰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 옆에는 한국어 구화를 쓰는 사람. 프랑스어 음성어를 쓰는 사람, 프랑스어 수어를 쓰는 사람. 내가 쓰는 모국어를 생각하다가, 내가 쓰는 언어는 국가의 단위가 아닌 더 작은 지역에 속한 언어라는 생각을 했다. 프랑스어-한국어 통역사, 프랑스어 수어통역사, 한국어 문자통역사와 함께 했다. 내가 한 마디를 하면, 다른 언어로 번역되고 또 다른 언어로 번역되고 그러다 번역되지 않는 구간은 다시 내게 돌아와 다시 그 과정을 밟고 상대에게 도착했다. 그제야 내 말을 들은 사람의 표정을 볼 수 있었다.

무례하지 않게 당신이 어떻게 듣는지 좀 더 알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이런 차이를 즐길 수 있을까. 우리의 듣기를 더 작은 지역으로 쪼갤 수 있나. 그 언어를 배워 볼 수 있나. 이번 리서치의 주제는 '듣기의 방법'이 되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자신이 어떻게 듣는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떠올리고, 듣고 있는 자신을 되돌아봤다. 그리고 그렇게 듣는 방법의 이름을 붙였다. 다양한 듣기의 방법을 모으기 위해, 내 이야기를 상대는 어떻게 들었는지를 떠올려보거나, 어떻게 들어주기를 바라는지 이야기를 나눴다. 자신의 경험과 상관없이 궁금한 듣기

의 방법을 제안해보기도 했다. 그리고 이것들을 메모지에 적었다.

귀 기울여듣기, 입모양으로 듣기, 수어로 듣기, 의심하며 듣기, 번역하며 듣기뿐만 아니라, 녹음해서 듣기, 흘려듣기, 누가 말을 하는지 살피며 듣기, 같은 곳을 보며 듣기... 작업실 바닥에는 다양한 듣기의 이름들이 놓였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듣기를 시도했다. 진지하게 혹은 가볍게 다른 사람의 듣기를 경험했다. 그때 나는 듣는 사람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듣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내가 알지 못하는 먼 나라의 언어를 알아듣는 사람들 같기도 하고,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안간힘 같기도 하고, 이상한 공연의 군무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후에는 서너 가지 '듣기의 방법'을 선택해 구성을 했다. 우리 중 한 사람이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구성한 방법에 따라 들었다.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가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듣는 방법을 선택하고 구성했다.

모든 활동을 마치고 우리는 잘 듣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의 주체는 얼마나 모호한지, 듣는 감각은 수동적인 감각이 맞는지, 일상의 언어 환경에서 청자와 화자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개입되고 그에 따라 얼마나 다양한 듣기와 말하기가 생겨나는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리서치를 끝낸 지 몇 달이 지났다. 지금 가장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은 진행 내용이나 의도에 관한 것이 아니다. 함께 한 사람들. 어려운 요가 자세를 하는 와중에도 귀를 열어 선생님 말씀을 듣는 사람, 운전하며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서 같은 방향을 보며 말하기를 제안한 사람, 듣는 사람이 말하는 자기 목소리를 좋아하면서 듣기를 바라는 사람, 등산을 하며 수어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마주 보고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공간과 기분을 조금 알게 되었다.

소리 언어의 글자화

김은설

나는 마르세유에 가기 전에 서로 잘 알지 못하고 언어가 달라서 경험, 언어습관,감각 등을 어떻게 공유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다.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다. 마르세유 첫날부터 서로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각자 언어에 대해 어떻게 쓰고 있는지 경험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다. 이 시간이 제일 기억에 남았다. 존재하지 않는 언어, 중간언어, 친할수록 형성된 언어, 번역으로 할 수 없는 언어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다. 문득 나는 어떤 언어를 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언어의 차이점, 거리감 등을 조금 더 알고 싶었다.

내가 리서치를 시작하기 전에 해미 작가님은 한국어, 프랑스어의 차이점에서 나오는 의성어, 의태어 관한 리서치를 진행했고, 위성희 작가님의 〈듣기 방식〉은 어떻게 듣고 있는지 여러 방식을 제안해보고 바꿔보고 선택해서 들어보는 리서치를 진행했다. 주제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러 관점에서 질문이 나왔고, 서로의 언어를 직접 경험해보고 이해가 생긴 상태였다. 서로의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각자 타고난 신체에 따른 습관, 취향 등 선호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신체에 서로의 이야기가 담아있는 셈인데 그중에 소리 언어를 다루고 싶었다.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거나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음성, 문자, 몸짓 등의 수단에 쓰이는 언어를 통해 소리를 공유했으면 했다.

소리는 청각적으로 들리고 시각적인 형태가 없고 시간성을 갖고 있다. 소리가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만 소리를 들은 순간 하나의 인상이나 이미지가 머릿속에 남아 소리 자체를 기억한다. 농인들은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소리 내는 움직임에서 주로 본다. 누군가가 박수를 칠 때 박수의 속도, 리듬, 동작의 크기, 힘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에서 소리를 상상하는 식으로 한다. 청인이 생각하는 소리, 농인이 생각하는 소리가 다를 텐데 소리 언어로 만들어 소통하면 어떨지 제안해보고 싶었다. 해미 작가님의 의태어·의성어 리서치와 위성희 작가님의

듣기 방식의 리서치를 진행한 상태였기 때문에 한국인에게 친숙한 의태어·의성어는 프랑스인에게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였고, 위성희 작가님의 듣기 방식을 통해 꼭 귀로 듣기만 있지 않다는 것을 워밍업 한 상태이어서 다소 복잡한 리서치를 시도해볼 수 있었다. 소리 언어를 시각화로 해서 글자로 만들면 각자 갖고 있는 배경 문화를 담아내면서 함축할 수 있을지 궁금했다. 함축시킨 소리 언어를 서로 보여주면 서로의 시간이 보일 것 같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소리 언어를 함축시키기 위해 단계별로 밟아갈 수 있게끔 가볍게 나의 이야기부터 했다. 특히 소리를 눈으로 보기 때문에 어떠한 움직임, 형태, 크기, 질감, 힘의 세기에 따라 소리를 상상할 수 있다고 공유를 했다. '부엌'이라는 키워드를 꺼내 쉽게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했다. 각자 기억하고 있는 '부엌'에서 나는 소리가 무엇인지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어떤 이는 요리할 때 도마와 칼 부딪친 소리, 어떤 이는 깜빡이는 환풍기 불 등등 표현했다. 몸에서 기억하고 있는 소리를 불러오는 단계를 거쳐야 감각이 확장되어 소리를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다음은 부엌에 나는 소리를 의성어, 의태어로 표현해보기 했다. 도마에 칼 부딪치는 소리를 '탁탁탁', 주전자 물이 끓는 소리를 '보글보글'식으로 소리를 글자화로 남겨보면서 감을 익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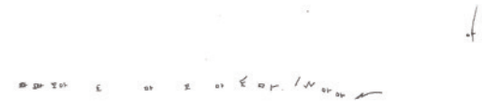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글자에 소리를 담는 시각화하는 시도를 해보았다. '바람'이라는 단어를 제시했고 바람이 불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바람이 불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현상이 있는지 묘사를 해보는 식으로 진행했다. 바람이라는 글자의 형태를 변형시켜서 바람의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다. 각자 알고 있는 바람의 소리를 의성어와 의태어를 활용해서 글자화를 보여준 사람이 있었고 글자 없이 소리 형태만 그린 사람이 있었다. 나는 글자 없이 표현하는 점이 흥미와 의문이 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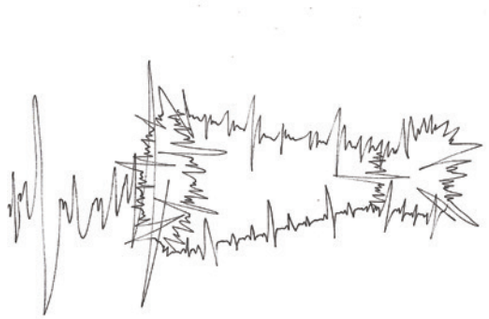
었다. 문자가 없으면 말로 전달하게 되어있는데, 말과 문자가 없다면 내용을 알 수 있을까? 글자가 없이 소리 형태를 보여주더라도 소리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파악할 수 있을지 궁금했던 참에 모두가 주제를 알고 있어서 소리 단어를 보고 파악을 잘 했다. 다양한 소리가 나왔는데 각자의 관점이 드러나 있어서 재밌었다. 글자 하나에 그린 사람의 시간이 함축된 듯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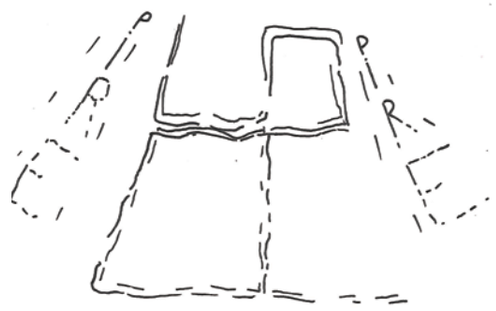
마지막 단계로 짝을 지어 특정 장소에 가서 소리를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프랑스인과 한국인, 청인과 농인 이렇게 서로 문화가 다른 몸끼리 짝을 짓도록 의도했다. 이후에 소리 언어를 보여주기로 했다. 흥미로운 건 서로 같은 곳, 같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만 각자 들려주는 소리가 상당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청인, 농인이 함께 다녀와도 듣는 방식이 다른데도 공통된 소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비록 언어, 문화, 감각이 달라도 공감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이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일까?

리서치를 진행하는 동안 언어가 달라서 소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두려운 마음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편견이 깨지는 시간이 있었다. 언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눈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프랑스에는 눈치를 보는 문화가 없다고 한다. 정확히 서구문화에 '나'라는 중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일수록 눈치를 보는 문화가 없다고 한다. 한국에는 있지만, 프랑스에 없는 말이라서 통역가가 애쓸 정도로 문화 차이가 컸다. '눈치'라는 단어와 배경에 사람들이 흥미로워했고 프랑스 수어도 없어서 레앙드로(프랑스 참여예술가)가 즉흥적으로'눈치'라는 수어를 만들어보기도 했다. 내가 재밌게 생각하는 점은 프랑스에 눈치 보는 문화가 없다고 하지만 프랑스 농인도 눈치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마르세유에서 일주일 정도 머물렀는데 그중에 5일 정도 프랑스 농인들을 만났다. 우리가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인데도 눈빛을 봐도 대

화가 될 정도였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내가 문자통역을 잘 이해를 못 하거나 답답해할 때 농인들이 내 기분을 눈치채고 쉬는 시간에 문자통역 담당하는 분에게 다른 방법을 제안했다고 한다. 이럴 때 보면 눈치 보는 문화가 없다고 해도 농인이라면 시각정보를 얻어야 소통을 할 수 있어서 눈치가 발달 되어있다고 생각이 든다. 아니면 농인 아니더라도 개념이 달라서 눈치를 '배려', '분위기 의식',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관찰하고 행동하기'등으로 전환되어서 생각을 못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주변 중심으로 관찰하거나 정보를 얻어서 소통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눈치가 저절로 생길까? 질문이 들었다.







교차 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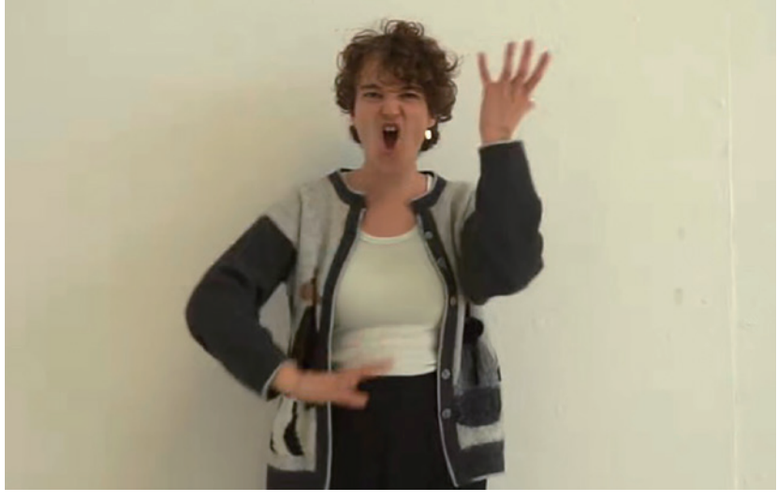
Les briques croisées

마린 꽁뜨
Marine Comte

나는 해미 작가의 리서치 공유를 통해서 '의성어'와 '의태어'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했고, 이 단어들과 수어의 관계, 그리고 수어에서 좀 더 시각적인 것을 찾고자 했고, 이는 언어의 질서를 해체하고 재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프랑스어에는 말장난, 단어의 음절을 뒤집어 말하는 은어(어휘 음절의 앞뒤를 바꾸어 만든 새로운 단어)가 있다. 이번 리서치는 이 아이디어에서 시작하여 수어에 변화를 주고자 했다. 예를 들어, 몸짓을 바꾸거나, 방향을 바꾸고, 여러 상황들을 교차시키고, 요소들의 역행과 분리를 실험해 보았다. 이는 수어의 매개변수를 구분하고 구별하는 것이다. 즉, 역학의 분할에 의한 4차원 장면을 단절하는 것이다.

이것은 수어를 통해 단어의 음절을 뒤집어 말하는 은어와 더 가까워지기 위한 연구이다. 이것은 마치 상황을 벗어나 수어의 자동성(?)을 깨뜨리려는 것과 같다. 이번 리서치를 통해 매개변수 중 하나인 '표정'을 조사하고자 했다. 표정은 몸짓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그 의미를 부각하는 것과 같다. 나는 두 가지 다른 상황을 구성하고 두 표정의 순서를 바꾸고자 했다. 명시적으로, 우리는 비정상적인 유리가 있음을 빨리 알 수 있고, 이런 부조화는 의성어를 강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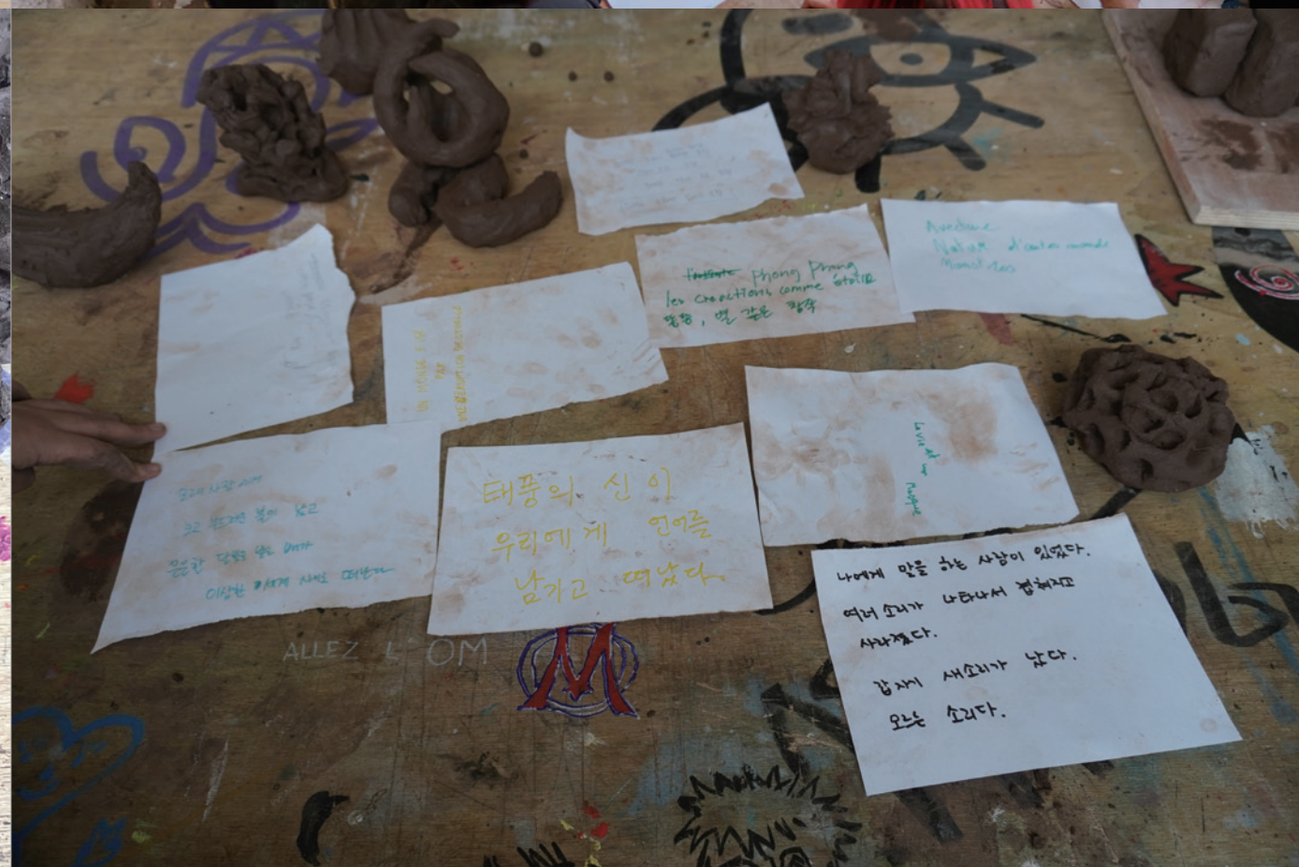


소통의 필터들

Les filtres de la communication

아리엘 홀츠
Arielle Holtz

이번 아트엘과의 첫 리서치 교류에서 나는 번역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해석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 첫 번째 문제에서 우리가 사물을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참여자들에게 한 동작을 제시함으로써 점토에 그 동작을 만들도록 요청했다. 다 만들어진 조각들은 함께 테이블 위에 놓고, 각자에게 가장 어울릴 만한 단어로 설명을 요청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해석의 가능성들을 모으니 한 편의 시가 되었다.


태풍의 신이
우리에게 언어를
남기고 떠났다.

형태와 기호,
경험의 변형[1]

des Formes et des Signes,
Anamorphoses de l'expérience

프랑카 트라바토
Franca Trovato

언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어떤 경험을 하며, 어떻게 그것을 공유하는가?
이 질문은 다른 형태로, 다른 순간에, 또 다른 예술가들과 논의되지만, 마르세유와 서울로 오가는 리서치 프로그램에서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그리고 지리적으로 더 심도 있게 다루어졌다.

마르세유 미술 대학(Marseille public college for artistics studies - INSEAMM)[2]를 졸업한 프랑스 예술가 해미를 통해 아트엘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2021년, 아트엘과 피랩 크레이션은 여러 차례의 온라인 화상회의를 진행하였다. 시차를 고려해서 서로에게 가능한 시간대를 찾아 서울의 아트엘 작가들과 마르세유 아뜰리에 피랩의 학생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조금씩 파트너쉽 프로젝트가 구체화되었고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계획들도 논의되었다. 그리하여 2022년 시월, 우리는 마르세유에서 첫 번째 리서치를 통해 서로를 실제로 만났으며, '언어란 무엇인가?'라는 이 문장을 주제로 교류와 리서치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참가 그룹은 예술가와 학생들, 청각장애인들과 비장애인, 한국어와 프랑스어, 한국 수어와 프랑스어 수어를 쓰는 사람들과 영어나 스페인어가 모국어인 프랑스어 사용자로 구성되었다. 프랑스 말은 한국어와 프랑스 수어로 동시에 통역되었고 한국어로 통역된 프랑스어와 프랑스 수어는 모니터를 통해 한국어(문자)로 전달함으로써 청각 장애가 있는 한국 작가들과의 대화를 도왔다. 이 토론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토론과는 다른 시간성을 가졌고 소통을 하는데 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평소보다 더 천천히 말해야 했고, 리듬을 늦춰야 했으며 발언 시간을 지켜야 했으므로 우리는 좀 더 주의 깊게 듣고 지속해서 집중해야 했다.

언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어떤 경험을 하며, 어떻게 그것을 공유하는가? 혹은 다른 무엇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교환과 몇 차례의 토론 끝에 일련의 단어들 속에서 하나씩 베일을 벗어가며 무언가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 일련의 단어들은 언어가 무엇인지를 말했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정의를 내렸으며, 그 특징들을 표현했다.

역동적인, 진동, 한계, 오해, 장애물, 관계, 리듬, 필터, 방법, 감정 소통, 해석, 단축어(축약되거나 잘린 단어들), 교환, 이해, 개인적인, 지각, 추측하기, 악기, 약속, 구조, 상상, 근사치, 불완전성, 뉘앙스, 맥락, 저항, 의사소통, 흐릿한, 더 많은 것들을 내포하는 단어, 근접성(우리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구문(해체된 구문), 주석, 친밀함, 붐!!(무언가 터지는 소리), (대결), 전달, 가운데(둘 사이), 즐거움, 한 번 더 생각해보기(다시 생각하기), 배우기, 사라짐, (죽은 언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언어), 모국어…

프랑스어는 langue (발음:랑그, 뜻: 혀, 말, 언어)와 langage(발음:랑가쥬, 뜻: 언어, 언어활동)이 별개의 두 단어이지만 영어에서는 language(발음: 랭귀지, 뜻: 말, 언어) 한 단어가 프랑스어의 두 단어의 뜻을 모두 내포한다. 한국에는 두 단어가 존재한다. 첫 번째 단어는 다소 모호한 의미로 말과 언어를 뜻하고 두 번째 단어는 말과 그 말의 내용을 의미한다. 이 두 단어에는 중첩된 의미가 있다. 우리는 말과 말의 내용이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언어와 그 언어활동이라는 뜻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의 아트엘은 공동 리서치를 제안하며 이 생각들을 계속 이어 나갔다.

- 한국어에 특히 풍부한 의성어와 의태어에 대한 대화와 경험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간극을 뛰어넘어 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 주었다.
- 서로 다른 듣기의 종류. 구어와 수어, 문자와 같은 여러 다른 의사소통이 있는 것처럼 듣고 경청하는 것도 여러 방법이 있다. 소리에 만 국한되지 않는 청각과 듣기.
- 눈치: 한국의 문화에는 눈치는 시선의 감각이라고 할 수 있다. 눈치가 있다는 뜻은 특정한 분위기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뜻이다.
- 프랑스 수어에는 듣기를 말할 때 귀로 듣는다는 것과 눈으로 듣는 두 가지 표현이 있다.
- 소리의 형태를 상상해 보기. 여러 다른 공간에 적용해 보기. 주방이라는 공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물이 아주 세게 흐를 때 우리는 커다란 소리를 상상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차가운 물을 만졌을 때 우리는 아주 차가운 소리를 상상할 수 있다. 어떻게 감각과 연관해 소리를 상상할 수 있을까? 소리는 온도가 없다.

이 주제들은 퍼포먼스, 글이나 그림으로 된 기호들, 혹은 몸짓을 통한 공동 리서치에서 다루어지고 연구된 개념들이다. 몇몇 학생들은 서울에서 열린 두 번째 리서치에 참여하였다. 마르세유에서 시작된 그들의 프로젝트는 아트엘의 참여예술가들이 이끈 세션에서 더욱 발전했고 그 깊이를 더했다.

- 마음속 이미지란 무엇이고 이것을 우리는 묘사할 수 있는가?
- 눈치를 시연해 보기
- 참여자들 간에 형성된 관계를 탐구하기
- 동의어와 반대어를 사용해 시적인 어떤 형태를 만들어 보기
- 글로 쓰거나 그림으로 그려서 옮겨 적기. 소리나 표정 혹은 말의 흔적들
- 손상된 이미지나 사진을 보고 어떤 장소나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 한국어, 프랑스어, 한국어 수어, 프랑스어 수어, 이 4개의 언어가 가

진 특징들을 모아서 새로운 글자 알파벳을 만드는 것.

- 두 나라의 수어의 다른 점과 두 수어의 통사론적 구조의 차이점
- 서울의 도시 경관과 지중해 마르세유 미술 대학 캠퍼스의 서로 대비되는 풍경에 몰입하기.
- 이 다양성 안에서 만들어 낸 리서치의 형태는 우리가 함께 나눈 모든 경험이 어우러져 빚어낸 하나의 아나모포시스*가 아닐까?

리서치 형태의 다양성은 여러 문화와 언어 사이의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서로의 문화와 그 차이점에 대한 호기심, 하나의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의 통역과 번역, 시각과 몸짓에서 소리와 발성으로의 연결 고리, 소리와 발성에서 구전과 글쓰기로의 연결 고리 그리고 오해와 장애물들에 의해서 더욱 풍부해졌다.

이 참여형, 협업형 리셔치 교류프로그램은 2023년과 2024년에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쉽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1 변형(Anamorphoses) : 어떤 각도에서 보면 일그러져 보이지만 어느 특정 지점에서 보거나 거울과 같은 어떤 특정 도구를 사용하여 보았을 때 올바른 형태로 보이도록 왜곡된 이미지, 혹은 그러한 현상을 이용한 표현 기법을 말한다. 단어 자체는 착각을 일으키는 일그러진 상이란 뜻이 있다. 회화나 조각, 설치 미술, 타이포그래피, 광고 등의 시각예술 분야에서 메시지를 숨기거나 시각적 흥미를 끌어내기 위해 사용한다.

2 마르세유 미술 대학(Marseille public college for artistics studies - INSEAMM)는 청각장애나 난청이 있는 학생들이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하는 학교로, 이곳에서 아뜰리에 피랩은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들의 상호 간의 이해, 비언어적 소통, 상호작용, 통역과 번역을 기반으로 한 성찰과 예술 활동을 제안한다.

한국 서울에서의
2차 리서치 교류

일정

2023년 12월 6일(화) - 12월 10일(토)

장소

서울문화재단 예술청 프로젝트룸

참여예술가(한국)

김은설, 박주영, 위성희, 해미 클레멘세비츠(Rémi Klemensiewicz)

참여예술가(프랑스)

아리엘 홀츠(Arielle Holtz), 레앙드레 쉐보(Léandre Chevreau),
최나래(Narae Choi), 로이스 라갱(Loïs Raguin)

한국어-프랑스어 통역

김민경

프랑스 수어통역

아나이스 가부(Anaïs Gabu)

한국 문자통역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언어와 심상

Langage et Image mentale

해미 클레멘세비츠
Rémi Klemensiewicz

서울에서 함께한 두 번째 만남에서, 나는 좀 더 일반적인 개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나는 두 번째 리서치 제목을 “언어와 심상”이라고 정했다. 이번 리서치도 마르세유에서의 첫 번째 리서치와 같은 맥락으로 진행하고 싶었다. 먼저 언어의 문제에 대한 내 생각과 언어학 요소에 대한 이론적인 주제를 발표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앞서 공유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해 보기 위한 공동작업이 이루어졌다.

심상이란 주제를 다루기에 앞서 우리가 경험한 언어(글, 말 혹은 기호(수어)의 객관성과 주관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나의 단어나 기호를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그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이고,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단어와 기호에 상응하는 개념을 식별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언어학의 몇 가지 기본 요소, 그중 특히 유명한 기표 - 시니피앙(signifiant, 글, 말 또는 기호, 수어로 표현된 단어), 기의 - 시니피에(signifié , 개념, 생각 및 심상) 그리고 실재(chose réelle, 예를 들면 물리적인 사물) 사이의 삼각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기표는 표현의 단계로 구체적이고, 기의는 생각이나 상상의 단계로 보다 추상적이다. 마지막으로 실재하는 것, 이것은 존재의 단계이며 이 또한 구체적이다. 이 세 요소 중, 기의-시니피에(심상)가 이번 리서치의 주된 주제였다. 우리가 논의한 다른 요소들은 객관성의 질서를 가지는 데 반해(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심상은 상당히 주관적이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듣거나 읽을 때 (혹은 수어를 볼 때), 우리 머릿속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미지가 떠오른다. 그러나 말(혹은 수어)의 흐름에 의해 우리는 각각의 단어와 수어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따로 떠올리는 것을 멈추고 문장의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데 집중한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거나 글을 읽을 때, 단어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심상을 하나씩 떠올리기보다는 그 말이 전하고자 하는 전반적인 상황을 상상하는 경험을 한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

는 단어들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심상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 발표의 두 번째 부분에서 나는 내가 발음하는 한 단어를 듣고 (이 단어는 수어로 통역되었다) 우리 마음속에 떠오른 심상에 집중해 볼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최대한 자세히 묘사해보길 요청했다. (색깔, 형태, 크기, 재료, 분위기 등등). 첫 번째로 제시된 단어들은'산, 나무, 집' 이었다. 두 번째로'개, 창문, 도시'란 단어를 내가 소리 내 말하지 않고 글로 써서 보여준 후 앞서 한 작업을 반복했다. 심상을 묘사하는 방법에 있어 많은 공통점이 발견되는 것이 무척 흥미로웠다. 처음에는 이미지들이 마치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처럼 아주 단순하고 정형적이었는데, 묘사의 요소들이 더 사실적이고 개인적으로 될수록 이미지들은 더 정확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가는 일종의 과정이었다 (아마도 무의식에서 의식적인 생각으로의 과정). 세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같은 작업을 반복했지만, 이번에는 금지, 주위, 어린 시절, 소리와 같은 더 추상적인 단어들을 사용하였다. 더불어 상응하는 심상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위해 우리는 각각의 단어를 그림이라는 수단을 통해 단순한 그래픽(기호의 단계)으로 표현해보았다. 우리는 추상적인 단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서도 차이점도 있지만 많은 공통점을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네 번째 단계로 한국어권이 아닌 참여자들에게 한글로 쓰인 단어를 보여주고 그 단어의 시각적인 형상을 보고 든 느낌을 자유롭게 얘기하였다. 이렇게 한글로 쓰인 글자가 가지는 시각적 형상만을 보고 그 문자가 뜻할 것 같은 의미들을 상상해 보았다. 예를 들어 꽃이라는 단어는 거의 모든 참여자가 얼굴을 뜻하는 글자일 거로 생각했다.

이 리서치의 목표는 언어에 의해 생성되는 시각적 표현을 경험하는 것이었다. 맥락을 배제하고 오로지 단어만 보고 심상을 찾아 분석하는 것은 인위적인 작업이었지만 이 과정은 우리에게 말과 언어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해주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은 우리가 학습한 것에 종속되는 일종의 규범이다. 이 단어들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을 좌우하는 중요하고 미묘하며 수량화할 수 없는 영향들에 의해 만들어진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을 함축하는 역할을 한다.

생각, 상상
(추상적)

idée, imagination
(abstrait)

표현
(구체적)

représentation
(concert)

존재
(구체적)

existence
(concert)

위대한 상징성

La grande Iconicité

프랑카 트로바토
Franca Trovato

1차 리서치 교류 프로그램 기간동안 프랑스 수어에 대한 실험은 수어의 구조에 대한 몇 가지 개념들을 통합하고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그중 특히 언어학자 크리스티안 쿠삭(Christian Cuxac)[1]이 분석한 내용들을 선택했다.

언어 연구의 출현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의 역사적인 일들을 알아야 한다. 수어가 교육 언어로 인식되고 초기 연구가 출현한 프랑스 수어의 황금기[2]라고 불렸던 시기부터 언어 연구의 출연을 이해하기 위해 몇가지 역사적 벤치마킹이 빠르게 논의되고 있다. 1880년 밀라노 공의회[3]에 이어 암흑기를 거쳐 1970년도 말에 청각 장애인 부흥[4]에 도래할 때까지.

이 몇 가지 역사적인 일들과 이러한 배경 소개는 프랑스 수어 연구의 선구자였던 폴 주이송(Paul Jouison)[5]과 크리스티안 쿠삭(Christian Cuxac)을 소개하기 위해서이다.

기호학자인 찰스 샌더스 피어스(Charles Sanders Pierce)[6]는 아이콘을 단서나 상징으로 구별했다.그는 아이콘을 그가 가리키는 것, 즉 현실 세계에서 그의 참고인처럼 보이는 기호로 정의했다.

크리스티안 쿠삭 (Christian Cuxac)의 분석에서는(시각적/제스처 경로를 통한 수어의 언어들), 수어의 기호 모양(몸짓)과 실제 또는 상상의 경험 사이에는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도상적이라 한다. 피어스의 정의에 의해 주어진 현실 세계에서의 지시 대상과의 유사성을 훨씬 넘어서서, 상징성은 무엇보다도 경험의 세계에서의 지시 대상과 유사하며, 따라서 시각적인 차원일 뿐만 아니라 감각적인 차원 또는 다른 형태의 지각과 실험이 될 수 있다. 이 정의는 크리스티안 쿠삭이 분석한 이야기의 예에서 프랑스 수어를 모국어로 하는 레앙드레와 함께 자세히 설명하려는 '실제 또는 상상의 경험을 암시하는' 이전에서 비롯된다.

레앙드레의 프랑스어 수어 이야기는 이러한 다양한 전이가 마치

한 영화의 여러 장면처럼 어떻게 구성되는지 볼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수어 이야기의 관점이 마치 영화에서 카메라의 관점처럼 1인칭에서 3인칭으로 변화하기도 한다. 레앙드레는 수어로 하나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두 번째로 이야기할 때는 '상황 전이', '개인 전이', '모양 및 크기 전이'를 자세히 설명한다.

레앙드레는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수어 이야기를 해주었다.

(한 남자가 수영장에 도착하고, 흘끔흘끔 쳐다보고, 수영장 끝에 다이빙 보드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남자의 이야기이다. 그는 다이빙을 하고 물에서 나온다) 이 수어 이야기를 읽기 위해 우리는 세 번 다른 방식으로 반복하기 전에 두세 가지 정보만 제공한다.

이 이야기는 쿠삭이 그의 연구에서 분석한 것이며 흥미로운 점은 프랑스어를 음성언어로 설명하면 수어만큼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이빙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고, 어떻게 수영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모든 특성들은 음성 언어로는 제공되지 않았거나 더 길게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수어로는 짧은 시간 안에 이러한 특성들과 자세한 설명이 가능하다.

세 번째로 이야기를 반복하기 전에, 우리는 다른 전이들을 설명하려고 시도했다. 이야기의 시작은 상황적 전이에 있으며, 공간은 묘사되고, 수영장과 사람이 도착한다. 그런 다음 레앙드레가 사람의 신체적 측면을 설명하지만 아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크기/ 모양의 전이로 넘어간다. 그리고나서 그가 설명하는 것은 사람이 되고 완전한 개인 이동으로 다이빙을 할 것이다. 여러 단계가 있으며 이야기는 전체 샷에서 클로즈업으로, 클로즈업에서 아메리칸 샷으로, 아메리칸 샷에서 클로즈업으로, 클로즈업에서 전체 샷으로 끊임없이 진행된다. 그리고 눈치 채셨겠지만, 수영장 주변의 관점(카메라 이동)의 변화도 있었다.

영화와의 비교는 의심할 여지없이 대담하지만 수어를 모르거나 연습하지 않고도 구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 분석은 맥락에 배치되고 단일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하지만, 다른 언어의 연구는 분명히 다른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을 것이다. 크리스티안 쿠삭(Christian Cuxac)의 언어 구조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접근 방식이 나에게는 눈에 띄었고, 예술적 관점에서 보여줌으로써 말하는 법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과 말한 것을 보는 기쁨이 있었다. 핵심내용을 잘 설명했기를 바란다.

1 청각 장애인의 황금시대(1760-1880), 수어가 교육 언어로 인정받고 초기 연구가 등장한 시기.

2 크리스티안 쿠삭(Christian Cuxac)은 프랑스 언어학자이자 파리 8대학의 교수이다. 그는 수어 그 자체가 한 언어로 인정받도록 기여했다.
(저서) 수어 언어: 언어 능력의 분석자, C. Cuxac 2001
Les langues des signes: analyseurs de la faculté de langage, C. Cuxac 2001
https://journals.openedition.org/aile/536

3 폴 주이송(Paul Jouison, 1948 - 1991)은 프랑스 수어에 대한 글을 남긴 인물로, 브리짓 그라시아가 편집한 "l'Harmattan, 1995"에서 그의 글을 볼 수 있다.

4 찰스 샌더스 피어스(Charles Sanders Pierce, 1839- 1914)는 미국의 기호학자이자 철학자이다. 그는 페르디낭 드 소시유르(Ferdinand de Saussure)와 함께 현대 기호학(또는 기호론)의 아버지 중 한 명으로 간주된다.

5 1880년에 밀라노에서 열린 공의회에서 청각 장애인 교육에 가장 적합한 수어 또는 구술 방법을 논의하고 결정했다. 이 회의가 끝난 후, 모든 참가국에서 수어가 금지되었다. 1991년이 되어서야 파비우스 법(la loi Fabius)에 따라 국회가 청각 장애 아동 교육을 위해 프랑스어 수어 사용을 승인했다. 2005년에는 프랑스 수어가 그 자체로 하나의 언어로 인정받았다.

6 청각 장애인 부흥은 1970-1990년대에 청각 장애인 공동체가 점차 문화적 특수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프랑스 수어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옹호를 취한 기간을 뜻하기도 하다.

한국 수어의 원리

고인경[1]

1. 음성언어와 시각언어의 언어적 공통점
    a. 자의성
    b. 기호성
    c. 사회성
    d. 역사성
    e. 창조성
    f. 분절성

2. 음성언어와 시각언어의 언어적 차이점
    a. 도상성
    b. 가역성
    c. 동시성
    d. 공간성

3. 한국수어의 특징
    a. 수어이름
    b. 지명
    c. 높임말

1 나사렛대학교 수어통역교육학과 강사, 나사렛대학교 수어연구소 선임 연구원

1. 음성언어와 시각언어의 언어적 공통점
가) 기타
(1) 노답
(2) 썸
(3) 떡볶이
(4) 해녀

2. 음성언어와 시각언어의 언어적 차이점
4) 공간성

시각적으로 그리기

김은설

마르세유에서 작업 후, 각자가 생각하는 언어가 개인적이고 주관적이어서 어떻게 하면 함께 실험을 해볼 수 있을지 고민이 컸다. 마르세유에서 지내면서 새롭게 발견한 것은 서로 언어가 다르지만, 언어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중 하나가 서로 수어가 다르지만 시각적인 표현을 통해 대화가 됐던 점이 떠올렸다. 프랑스 농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문화가 달라서 수어 모양이 달랐다. 매우 달랐는데 언어가 통했다. 수어를 할 때 애매한 부분이 생기면 비수지 표현인 뉘앙스나 크기, 정도를 표정으로 메꿨다. 예를 들어 미약하면 얼굴 근육 움직임으로 최소한 적게 움직여서 작고 작은 표정으로 지어보거나, 표현해야 할 높이나 양에 따라 입이 커지거나 놀란 듯이 눈을 크게 뜨는 표정 지을 수 있고, 반대로 입을 작게 오므려보고 실눈으로 옹졸하게 표현하는 식으로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 수어도 이미지를 가져와 만들어 보는데 크게 어렵지 않았다. 한국 수어는 한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수어가 많아서 프랑스 농인에게 설명할 때 그림 그리듯이 사물이나 상황을 묘사해서 보여줘야 이해할 수 있었다. 수어를 쓰지만 비수지 표현 중심으로 디테일하게 묘사하니 손과 표정으로 이미지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바디랭귀지도 비수지 표현에 가까운데 어느 정도 소통이 된 것처럼, 눈치를 봤을 수도 있고 본 적 없을 수도 있는 사람들과 비수지 표현을 이용하여 손과 표정으로 시각적인 표현을 해본다면, 눈치로 얼추 맞출 수 있는지, 어떤 관계가 생성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지만 도상화처럼 손과 얼굴의 움직임으로 이미지 만들었을 때 어떤 결과들이 있을지가 제일 궁금했다.

이때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시각적으로 그리기’를 실험해 보기로 했다. 수어를 할 때 나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상반신 앞에 무대 형식을 만들어서 표현한다고 생각했다. 수어의 비수지를 빌려와 무대 위에 캔버스를 그리는 식으로 표현해 보는 것이다. 비수지 표현은 표정, 입모양, 손의 방향, 손의 위치가 있는데 무게, 크기, 속도, 넓이 등을

표현할 수 있다. 비수지 표현을 미술 재료처럼 쓰게 했다. 직접 붓을 잡고 손으로 그려보는 것보다 얼굴 표정, 손가락과 팔 동작을 움직이면서 그림 그리려고 하니 쉽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비수지 표현을 크기, 무게, 속도, 넓이 등 단계별로 다 같이 움직여보고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궁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했다. 워밍업이 끝난 후, 주변에 있는 사물을 손과 표정으로 그려보기를 했는데, 손이 주변 사물을 흉내내는데 평면이 아닌 입체적으로 표현되다보니 여러 레이어가 둘러싸인 복합적인 그림으로 보여서 재밌었다. 각자 해석해서 특징을 표현하는 점이 흥미로웠다.

다음 단계로'대중교통'등과 같은 상황을 주었다. 그 상황에서 겪었던 움직임과 모습을 떠올리기 쉬울 것 같아서 상황을 설정했다. 진행해보니 상황에 걸맞는 감정 중심으로 표현하게 되었다. 몇몇 사람은 풍부한 표정과 함께 표현하는 반면에 대부분 손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표현을 했었다. 이 중에 특징이 보였는데, 표정을 써서 보여줄 땐 대부분 감정 중심으로 표현을 했다. 크기, 높이 등 보다 감정을 표현하면서 기억을 불러와 펼쳐준 것처럼 보였다. 수어랑 마임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동떨어질 수 없는 경계에 걸쳐있어서 수어와 마임이 비슷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어쩌면 글 쓰는 방식처럼 전개, 서술방식을 선택해서 그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여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의 진행 방식이 궁금한 점에 도달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았다. 자전적 이야기를 풀어서 보여주기보다 전시장에 놓여 있는 작품처럼 주변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각적인 이미지로 보고 싶었고 손과 얼굴로 만든 직접적이면서도 은유적인 표현이 동시에 공존되었을지, 바라본 사람의 시각과 생각이 궁금했었기 때문이다. 피드백 시간을 짧게 지나갔기 때문에 어쩌면 진행하는 동안 내가 놓쳤던 포인트가 더 있을 수 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안에 각자 돌아가면서 실험해 본 시간들이 무척 짧게 느꼈다. 소화를 해내지 못한 채 작별을 했지만 그동안 서로 실험해 본 것들을 바탕으로 곱씹으면서 발견한 것, 해보고 싶은 것을 해볼 수 있도록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수어 쓰기, 하나의 유토피아?

Ecriture de la langue des signes, une utopie?

레앙드레 쉐보
Léandre Chevreau

수어 문자, 유토피아적인 생각일까?

마르세유에서 한글의 기원과 한글 알파벳 그리고 음성학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었을 때, 해미 작가는 우리에게 한글 자음 형태의 기원을 보여주었다. 한글 자음의 모양은 그 소리가 발음될 때 변화하는 발성 기관의 형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해미 작가는 빔프로젝터를 이용해서 한글 자음의 발음 모양을 사람들의 얼굴 위에 겹치게 투사하여 보여주었다. 우리는 각각의 자음이 입안의 혀 모양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모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을 통해 나는 한글 알파벳의 이미지 형태는 현실을 바탕으로 한 시각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 경험이 나에게 영감을 주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리서치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나는 실제 형태에서 출발하는 이미지 기호를 만드는 이 아이디어를 수어에 적용해 보고 싶었다. 어쩌면 수어의 문자를 만든다면 청각장애 문화의 경험들을 청인들과 공유할 수 있고, 그들이 수어를 배울 때 좀 더 손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수어가 문자를 가질 수 있을까(=수어가 문자화될 수 있을까) 생각했다.

과거에도 수어를 문자화하는 여러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나는 여러 다른 기호 체계로 시도된 수어 문자 연구에 대한 역사책에서 시작점을 찾았다. 나는 이 책을 서울에서 진행한 공동 리서치에서 소개했다. 저자인 오귀스트 베비안(Auguste Bébian)은《미모그래피 또는 모방 표기의 시도(Écrire les signes, Marc Renard. Éditions du Fox, 2004)》라는 저서를 쓴 19세기의 선구자 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손의 형상만을 기반으로 하는 수어 표기를 시도했었다.

나는 나의 리서치에 모든 참여자들이 함께 하길 제안했다. 워밍업으로 어떤 손의 모양을 선택한 후 각자의 방법으로 손의 기호를 만들어보자고 했다. 그리고 그 손의 기호를 우리는 그림으로 그렸다. 이 첫 번째 단계는 참가자들이 다음 단계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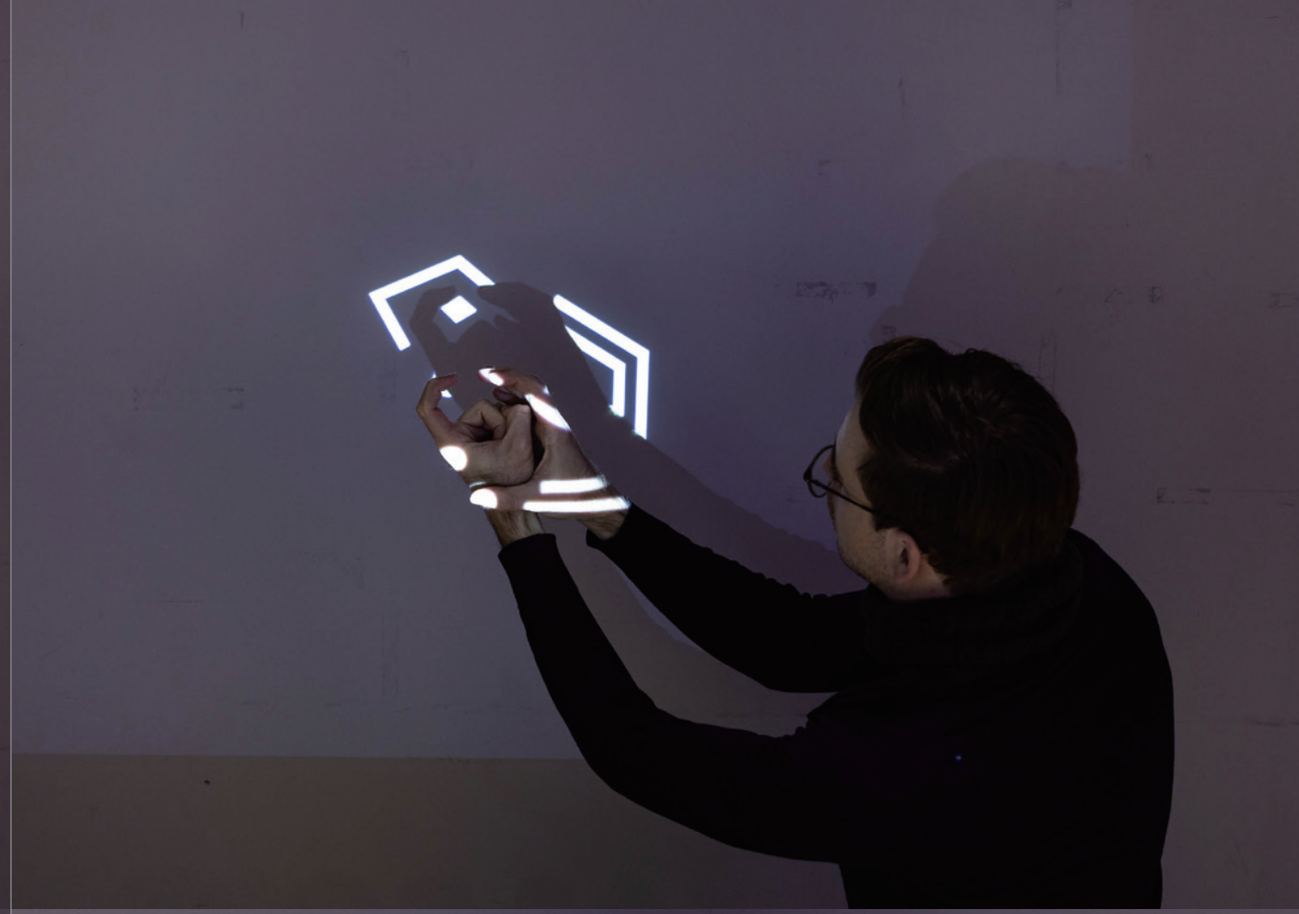
두 번째 단계는 수어 알파벳(ABCD)나 한글(가나다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미지화 시키는 것이었다. (*수어에서 영어 알파벳이나 한국어 글자를 손으로 표현하는 것을 '지화(지문자)'라고 하는데, 주로 고유명사 중에 신조어, 외래어 등 지정된 수어가 없을 때 지화를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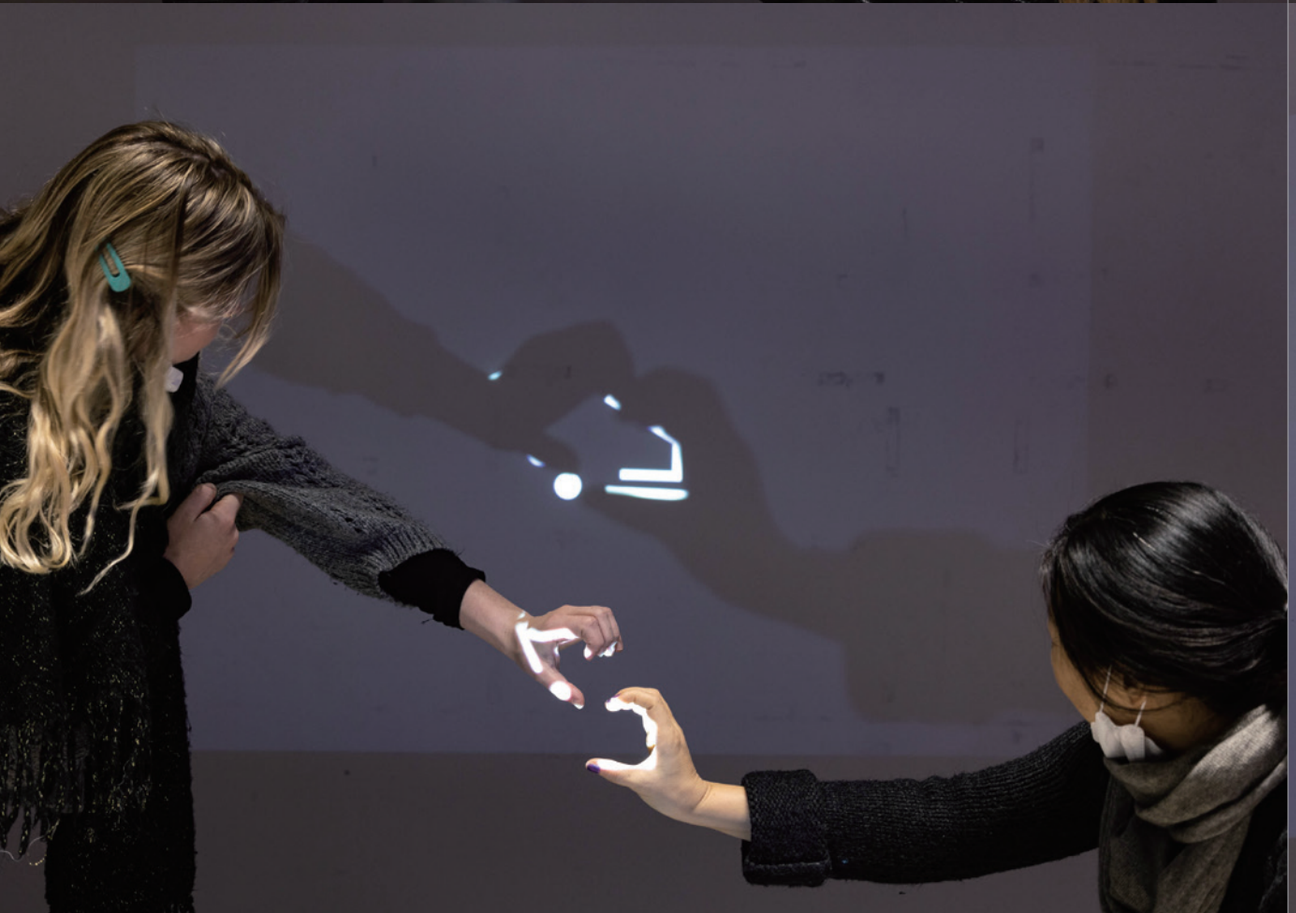
그런 다음 우리는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갔다. 나는 우리가 리서치를 하는 동안 사용했던 네 가지 요소, 프랑스 수어 알파벳, 한국 수어 글자, 한글과 프랑스어에서 사용되는 라틴식 알파벳을 사용해서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것을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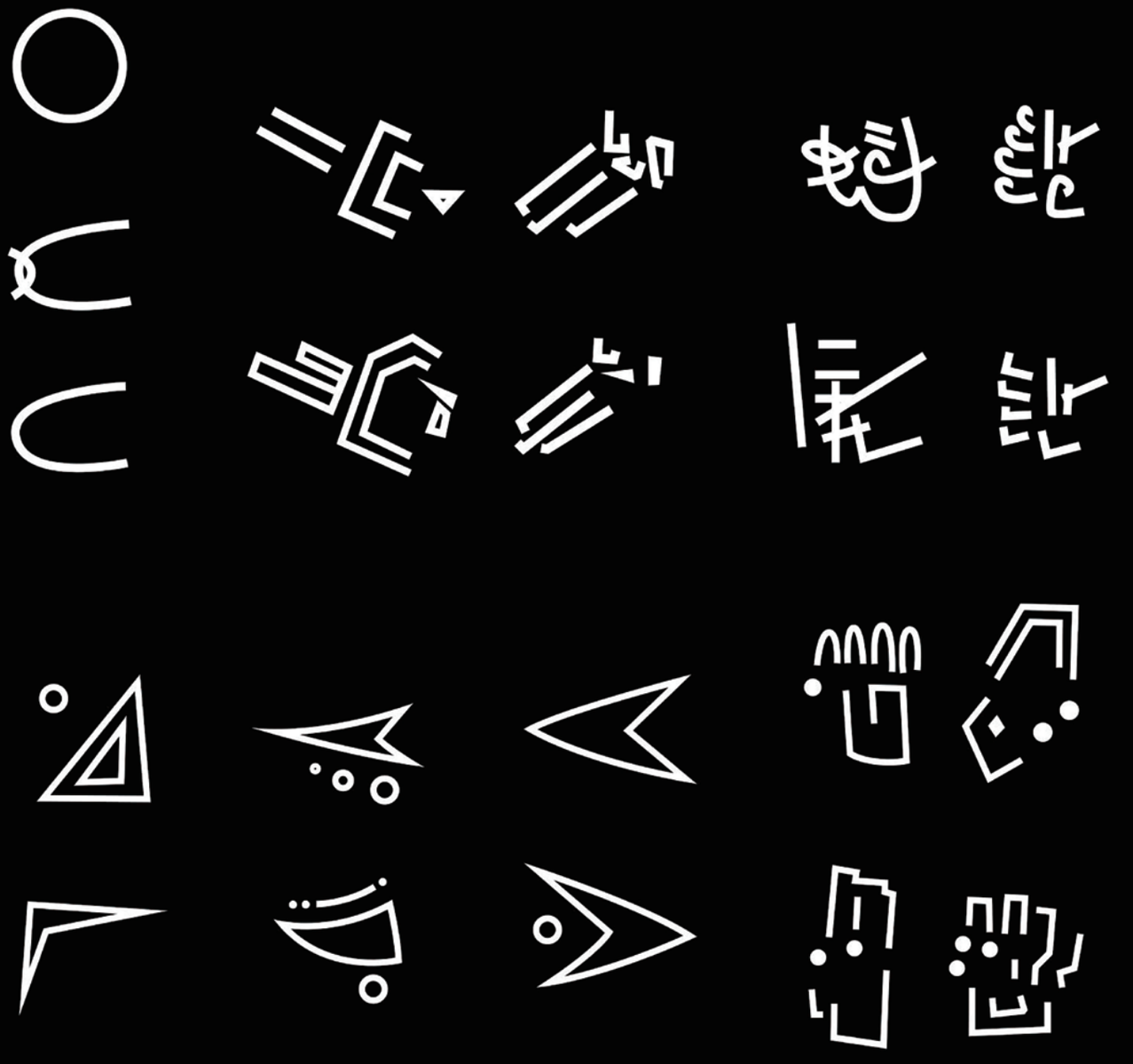
새로운 글자는 둘 혹은 네 개 언어의 특성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 혹은 서로를 나란히 놓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자신의 방법을 설명하고 만들어진 이미지적 결과물을 옮겨 적고 공유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 기호를 모아서 하나씩 스캔한 후, 다음날 참가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한 장의 종이에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재배열하였다. 서로 다른 기호들이 각각의 이미지가 가지고 있던 독창성과 스타일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마치 알파벳처럼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주 흥미로웠다. 우리는 프로젝터를 이용해 몇몇 그림들을 띄워놓고 각자 그 이미지가 나타내고자 했던 이미지 기호를 겹쳐서 재현해 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두 손으로 하는 시도를 해보았는데 하는 사람에 따라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 과정은 즐거운 게임과 같았다. 우리는 매우 즐거웠고 많은 사진들을 찍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우리가 관찰한 서로 다른 스타일과 형태들, 그리고 알파벳의 조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언어의 재발견

박주영

내가 어렸을 때 살았던 2층 주택의 옥상은 나만의 놀이터이자 비밀 장소였다. 방과 후 옥상에 올라가 숙제 연습으로 리코더를 불렸고, 밤이 되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똥별을 실컷 보았다. 다음날은 빨랫줄 위아래를 날아다니는 잠자리들을 보았는데, 그 모습은 마치 오선지 위의 음표 같았다. 파란 하늘을 보면 볼수록 심리적으로 노랗게 비쳤다. 그리하여 나는 노란색 바탕 위에 잠자리의 형태가 연상되는 영어 단어 중, K를 반복해서 썼고, 날개짓의 소리는 Z를, 그 외 잡음을 여러 단어들을 썼다. 문자들만으로는 추상적이니까, 잠자리를 그려 넣었다.

또 다른 것은 디자인을 전공한 나의 언니가 쓰다 남은 레터링 문구 스티커가 집에 많았는데, 나는 그것을 가지고 놀다가 한글로 어머니를 세로로 붙이고 다른 기호로 여성의 신체를 형상화했다. 이렇게 드로잉 몇 점과 함께 2011년 전시를 했지만 크게 관심받지 못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로 방향을 바꿔가면서 잊혔다. 아주 잊었다기 보다 변화해갔다는 편이 옳았다. 2017년 발화자의 입을 찍거나 펜으로 그렸고 2021년 발화자의 말의 억양, 심상 등을 드로잉을 했다.

2018년 〈듣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후, 4년만에 2022년 아트엘-피랩 크레이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마르세유 미술대학이 프랑스에서 청각장애인 학생을 받아주는 유일한 학교라고 한다. 점심시간 학교 카페테리아에 갔는데, 점심 식사를 사기 위해 줄 서는 사람들 중, 귀에 나와 같은 인공와우나 보청기를 낀 사람들을 보자 나는 마치 이산가족을 만나는 것처럼 신기했고 반가웠다. 나는 한국에서 수어를 배웠다가 농인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잊어버렸다. 그래서 점심시간마다 나는 잊었던 수어를 애써 기억나는 대로 현지 농인 작가들과 대화를 했다. 물론 프랑스와 한국의 수어가 다르지만 서로 가르치고 배웠다. 비장애 작가들은 입모양과 음성 어플로 영어에서 한국어 그다음 프랑스어로 번역하면서 대화했다. 수어, 구어, 음성언어, 비언어인 눈짓과 손짓의 다양한 언어 속에 서로 통역이 다 되기를 기다렸다가

듣고 말했다. 이러한 배려의 긴 시간은 빠르게 주고받은 일상적인 대화 형식이 아니었기에 특별했다.

프랑카 교수가 수어로 학생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간혹 보며, 대학교 때 문자통역의 도움 없이 혼자 독학했던 나는 한없이 부러웠다. 심지어 한국의 비싼 인공와우가 프랑스에서는 무료 지원이라고 한다. 나와 같은 장애인 친구들을 만나서 반가운 것도 잠시, 언어란 무엇인가? 처음 언어가 주제로 던져졌을 때, 나는 소통과 언어 사이를 혼동하기 시작했다.

언어에 대해 고민할수록 자꾸만 외형적인 소통의 행위만 기억하는 내 기존 관념은 비우고 이번 프로젝트에서 다른 작가들의'언어'에 대한 리서치 내용들을 온전히 수용하면서 언어의 다양한 관점들에 서서히 동화되어갔다. 쉽지만 어려웠고, 기대보다 엉뚱하게 흘려갔던 과정들은 오히려 양국 작가들이 즐겁게 참여했다는 점이 중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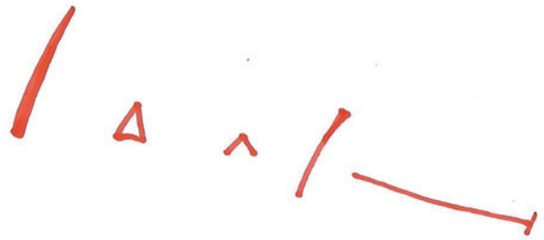
공동 리서치 과정에서 나는 예전에 그렸던 내 드로잉들이 떠올랐고, 내 드로잉과 연관되는 자료가 더 있지 않을까 하여 찾아보았다. 우연히 유튜브에서 어느 학자가 부바 키키 효과(Buba KiKi effect)에 대해 발표하는 것을 보았다. 구름같이 부드러운 이미지는 '부바'이고, 뾰족한 이미지는'키키'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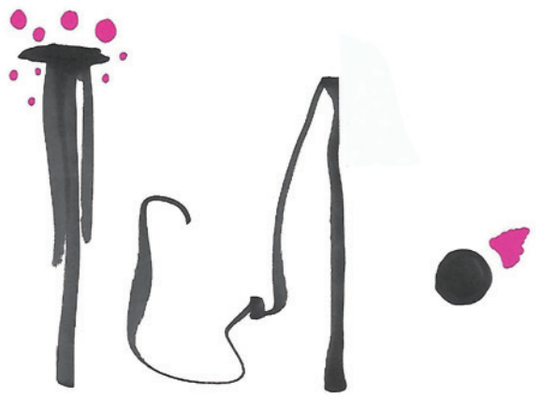
너무 단순하잖아… 이 단순한 그림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있다니, 나는 속으로 어이없는 듯 큭큭 웃었다. 부바 키키는 단순한 만큼 이해하기 쉬웠고 재미있었다. 그 용어는 1929년 독일-미국계 심리학자 볼프강 쾰러(Wolfgang Kohler)가 처음으로 발견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요즘도 언어학자들이 부바 키키를 예시로 들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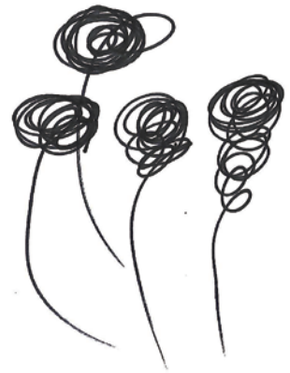
내 드로잉들과 그에 맞은 부바 키키 효과를 워밍업으로 설명을 해보자 생각했다. 그리고 작가들에게 단어나 문장을 말하게 하고, 그림을 그려보게 하는 거야.

마침내 나는 '언어의 시각화'를 주제로 발표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처음에 단단히 박혔던 내 관념이 느슨해진 것 같았다. 왜냐하면 나는 살아오면서 사회적 소통 안에서 받은 엄청난 걸림과 오해로 인한 개인적 경험이 오히려 언어를 고민하는 것에 방해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통이란, 주체와 객체가 함께 참여하는 대화가 들어간 외형적인 형태이고, 언어는 외형적 형태 안에 존재하는 삶에 필요한 쓸모와 감정을 전달하기 위한 문자나 음성, 몸짓 등의 수단이다. 길고 힘든 고민의 연속 뒤에 제안한 리서치 내용인 '언어의 시각화'는 오래 잠자고 있는 내 드로잉을 다시금 마주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미술가가 작품 앞에 말을 잘 해야 하냐는 질문과 동시에 내 드로잉 앞에서 어떻게 말로 설명하는지 이번 계기에 언어의 정체성과 감각의 관점을 좀 더 풍부하게 발견된 것은 자명했다.







감각 전달

최나래

'언어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토론과 테스트를 워밍업으로 단계를 밟아갔다. 참여예술가들은 열린 마음으로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경청했고 어떠한 엉뚱한 발상도 호기심을 갖고 접근했기 때문에 참가 예술가 모두 더욱더 부담없이 자신을 서로 꺼내놓고 이야기 나눌 수 있었다. 단, 분위기는 그만큼 자유로웠지만 결코 가볍지만은 않았다. 이야기를 나누며 내가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던 편견을 마주하고 깨닫고 고민하고 그리고 발견하는 시간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공동 리서치 기간 내내 나 자신에게 많은 감정과 생각이 휘몰아쳤다. 그래서 사실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가끔 버거운 순간들이 있었다. 흥미로운 관점들 발견하고 공동 리서치 상황 자체에서 오는 영감들이 너무 많아서 머리에 과부화가 왔기 때문이다. 그만큼 아트엘과의 작업은 단순 창작을 넘어 교육의 시간이자 나를 마주한 시간이기도 했다.

이 작업은 장애인, 비장애인, 한국인 그리고 프랑스인 등 같은 다른 언어를 구사하거나 감각방식이 다른 예술가들이 참가했는데 그중 누구에게도 기준을 갖지 않았다. 각자의 소통 방식을 알려주거나 배웠다기보다는 모두 각자의 경험이 수평적인 위치에서 공유되며 질문을 던지고 함께 실험하는 방식이었다. 즉, 누구의 장애, 비장애 혹은 누구의 언어가 특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가자들 모두가 다양한 발상을 할 수 있었다.

이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작업 방식은 나의 작업 스타일에도 영향을 많이 주었다. 최근 들어 '결과물'에 대해 열렬히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느리지만 꽉 차게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리서치 방식은 나에게 예술 활동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가끔 겉으로 보이는 미학에 치중해 표현하고자 했던 의도나 질문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고 또 그런 작품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작품이 논리를 상실한 상태 말이다. 그렇게 나는 '작품'을 만들려는 의도를 버리는 것부터 모든 가능성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다. 그게 상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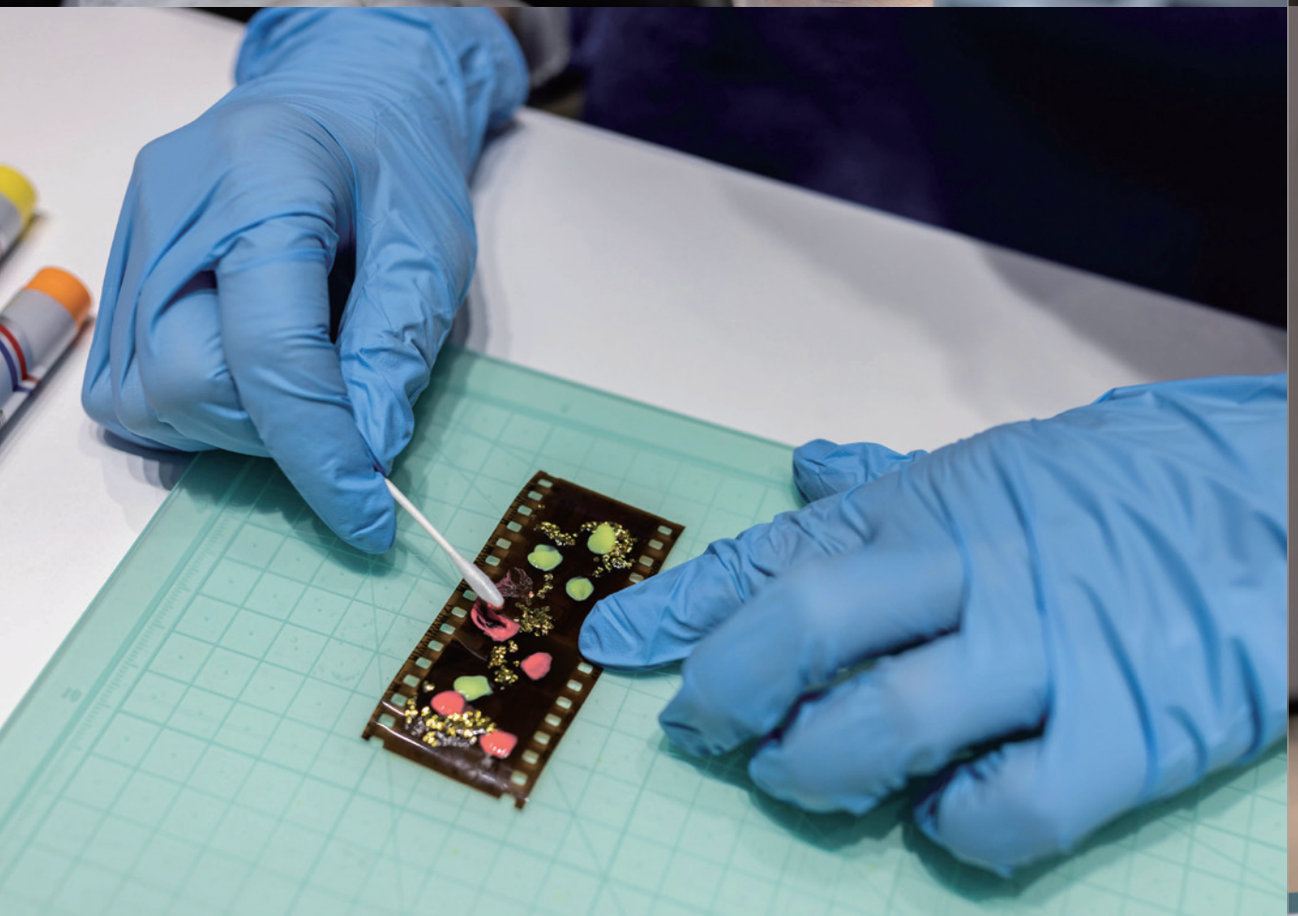
든 의견이든 판단이든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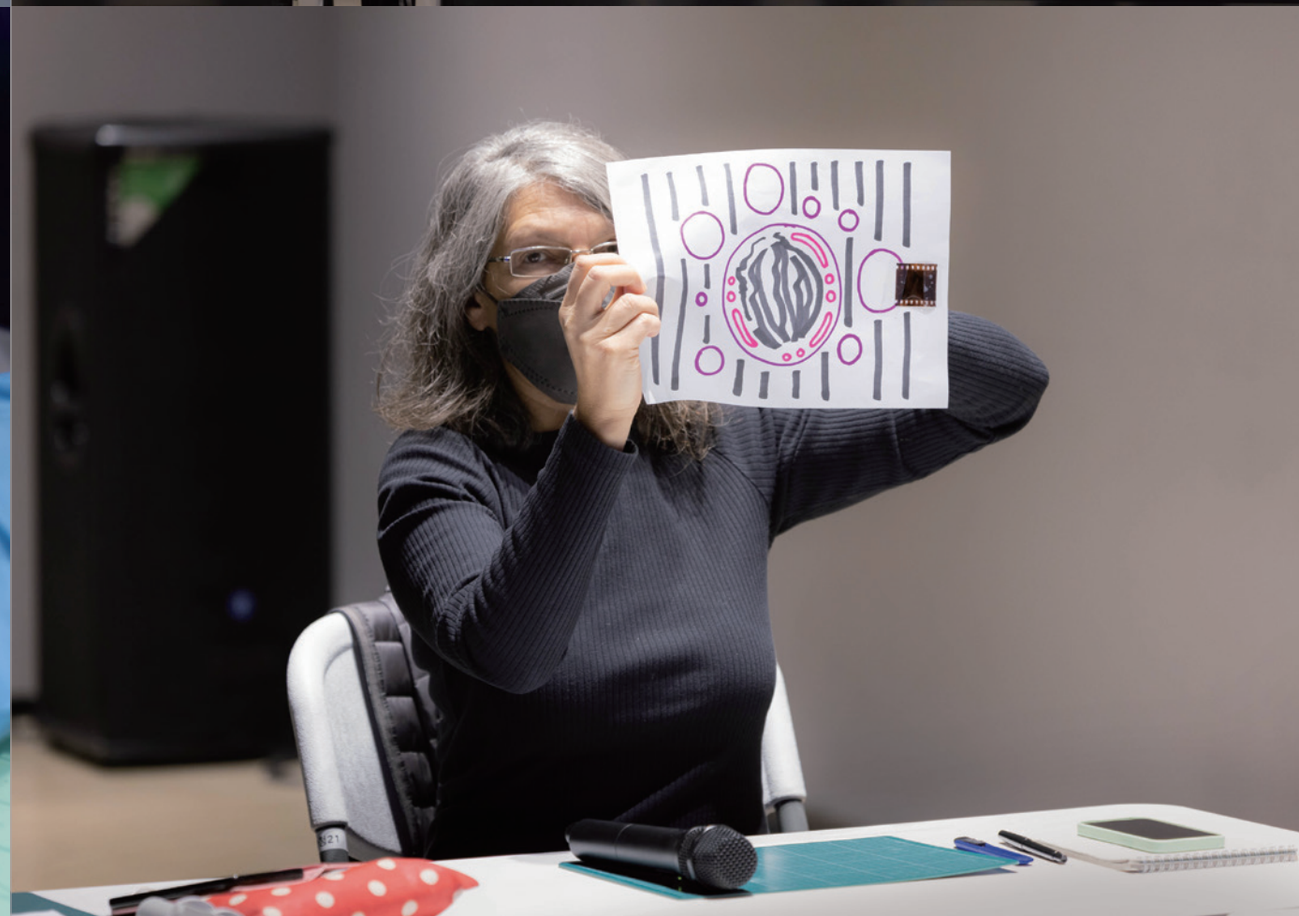
참여 예술가들과 리서치 활동 말고도 우리가 소통되기 위한 통역과 해석의 상황에서도 아이디어를 얻었다. 각자의 언어로 번역되기까지 쌓이는 주관적 해석들과 각자의 언어로 그룹화된 문화와 사고방식의 충돌들이 되게 흥미로웠다. 그렇게 나는 어쩌면 언어란 소통의 길이자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다랐다. 수어통역, 문자통역 그리고 음성통역 등 각자의 언어가 통역되는 것을 반복하며 장벽을 하나씩 넘어가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적 제한을 없애고 동일선상의 '무'로 시작해서 소통해 보기로 했다. 그리고 언어 없이 전달된 소통은 어떻게 왜곡되고 해석이 될지까지 실험해 보고자 했다.

참가자들에게 우선 어떠한 공간을 지정한 뒤 그곳에서 들리고 느껴지는 요소들을 그림이나 퍼포먼스로 기록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 전달하는 것을 제시했다. 전달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공간을 감각한 기록을 갖고 그 장소에 대한 감각을 추측하고 또 그림으로 기록했다. 이 전달 과정에서 최초의 착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시각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사진이란 매체를 사용했다.

이 실험을 진행하면서 공간을 듣고 보는 것이 다양한 색과 선으로 혹은 몸짓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감각 방식의 스펙트럼을 발견했다. 언어를 제외한 완벽하지 않은 소통 과정에서 생겨난 새로운 해석들이 흥미로웠다. 감각을 기록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왜곡되는 지점들이 있었고 동시에 같은 색깔 혹은 모양으로 나타난 특정한 요소들이 마지막 기록까지 새겨진 사진들처럼 어느 정도 최초의 착상이 전달된 것들도 있었다. 반면에 나는 언어가 제일 정확한 소통 방식이라고 생각했기에 해석의 다양성을 보고자 이 실험를 진행하였고 누군가에게는 언어가 제일 추상적인 소통 방식일 수도 있다는 점이 새로운 깨달음이었다.

Kodak FunSaver





오역, 오해, 사고

Mistranslation, misinterpretation, mishap

아리엘 홀츠
Arielle Holtz

당신은 당신이 무언가를 정말로 이해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의 모든 의미와 깊이를 모두 이해했다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당신은 당신이 진정 말하고 싶었던 것을 누군가 제대로 이해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이건 이렇게 명쾌하게 표현되지만, 당신은 정작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찾지 못할 수도 있다. Malentendu(오해)와 mauvaise interprétation(잘못된 해석). 이 프랑스어 단어들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는 듯하지만 영어에서 이 단어를 찾아보면 misunderstanding(오해), misinterpretation(잘못된 해석), mishap(작은 사고)을 들 수 있다. 비록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이해나 정보의'부족'(영어에서는 miss, 프랑스어로는 manque)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부족'에 초점을 맞춘다면 새로운 관점이나 기회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의사소통에서 왜곡을 일으키는 요인은 무엇일까? 나는 그 현상이 내가 소통의 필터라고 부르는 요인에 의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이 필터들은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에 존재하며 특히 아트엘과 함께한 공동 리서치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하나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은유하기 위해 단어가 되기도 하고 기호가 되기도 하며 혹은 타이포그래피가 되는 생각들.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견고하고 시각적인 표현들은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하고 있지만, 특히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넘어갈 때 더욱 증폭된다.

소통의 필터란 무엇이며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나는 소통의 필터가 하나의 생각이 어떤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넘어갈 때 생기는 변형이라고 생각한다. 4개의 언어로(프랑스어, 한국어, 프랑스 수어, 한국어 수어) 통역되는 마르세유에서의 첫 번째 공동 리서치에서, 통역을 위한 풍부한 자료들과 기반이 구성되었다. 이러한 장치와 우리가 평소 듣고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하는 일련의 질문들 덕분에 생각이 변형된 형태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하나의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넘어가는 과정과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점으로

인해 이 생각들은 잘못 이해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증가했다.

여러 나라의 문화와 여러 언어가 서로 교차하는 이러한 국제 교류 프로젝트에서 번역에 대한 질문들은 더 중요해진다. 번역은 하나의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원래의 문장이 의미하는 바를 '최대한 충실하게'전하는 문장으로 치환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우리는 이 번역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의 생각을 동일한 표현으로 만들기 위해 어휘-의미론적 문제, 문법의 문제, 통사론적인 문제, 실제적인 문제와 문화적인 문제와 같은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언어적 간극을 뛰어넘기 위해 노력했다. 여러 통역 과정을 거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는 언어가 단어와 구조에 의해서 주로 전달되지만 어조나 감정에 의해서도 전달된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꼈다. 해석은 어떤 것에 상징적이고 우의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어떤 사건이나 행동을 설명하는 방법이나 활동을 말한다. 이것은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 문화적, 언어적, 개인적인 편견들을 우회하기 위해 단어들을 변형하는 데 집중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비록 그 순간에는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통의 형태가 다른 것으로 넘어가는 것을 다 함께 경험했다. 이것은 이번 행사에서 우리가 한 이미지를 경험할 때 그 이미지를 통해 투영된 무엇이었으며 하나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첫 번째 견해였다. 이것은 추상적인 감정일 수도 있고 기억일 수도 있으며 하나의 문장일 수도 있다. 이것은 말과 기호를 통해 소통의 표현적 형태가 되기 위해 조금씩 다듬어졌고 원래의 생각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 되었다.

뒤틀린,
보호하다,
편안한,
기분 좋은,

Pisourd * 번역 불가능한 단어
번역 불가능한 의성어들.
혼동,
가벼운 바람,
신비로운,

이 단어들을 공유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실험을 했다. 우리가 서로의 문화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생각의 적정 범위를 만들고 서로 다른 통역 듣기 방법을 통해 성찰의 범위를 만들어 그것을 시각화했다.

이 해석에 대한 가벼운 아이디어는 동의어와 반의어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우리가 한 단어에 대한 동의어와 반의어를 검색하면 그 단어와 같은 의미의 단어들이 나타나지만, 각각의 단어들에는 고유한 하위분류가 표시된다. 마치 잘못된 소통에 의해 아주 조금씩 비켜나 버리는 해석처럼 동의어는 생각을 변화시키고 다른 생각으로 전환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나는 마르세유에서의 첫 번째 공동리서치에서 시작된 이 생각을 마르세유 국제 시 센터(Centre International de Poésie Marseille)에서 시인 마티아스 리샤흐(Mathias Richard)가 초대된 '언어의 기계(machines du langage) - 글쓰기에 사용되는 규칙의 시리즈'라는 주제의 아뜰리에 참여하면서 계속해서 탐구해 나갔다. 나는 최초의 단어가 가진 의미를 잃어버릴 때까지 계속해서 동의어의 동의어를 찾아나가는'동의어의 기계'를 만들어 적용해 보았다.

Le premier savoir est le savoir de mon ignorance: c'est le début de l'intelligence.
무지를 아는 것이 곧 앎의 시작이다.

Le préexistant omniscience est la compétence de mon crétinerie
c'est le préambule de la clairvoyance.
Le causatif érudit est l'autorité de ma sornette, c'est l'avertissement
de la lucidité.

이 문장들은 단어들을 동의어로 대체하면서 그 처음 문장의 뜻을 완전히 잃어버린 예시를 보여준다.

causatif érudit 원인을 나타내는 — 학식이 풍부한
autorité sornette 권위 — 헛소리
avertissement lucidité 경고 — 명석함

나는 이 실험을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의사소통을 고려해서 서울에서 열린 두 번째 공동리서치에 제안했다. 동의어의 번역은 생각의 차이를 상기시키고 그 차이를 더 드러나게 하는 복합성의 층을 만들었다.

anxieuse 불안한 — anxious 불안한
préoccupé 걱정하는 — apprehensive 걱정되는
Indifférent 무관심한 — confident 확신하는

잘못된 소통을 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나는 동음이의어(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단어)와 동형이의어(철자는 같지만, 뜻이 다른 단어)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번역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생각의 범주가 늘어나며 언어 간의 차이가 더 확연히 보이게 되었다. 구어와 비구어, 여러 다른 언어를 사용한 이 경험에서 나는 소통의 간격이 어디서 발생하고 어떻게 의사소통을 비켜나게 하는지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이 작업에는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고 이러한 교환 작업에서 번역의 역할에 대해 많은 질문들을 던지게 했다. 통역사는 이러한 작업에서 어떤 것을 바탕으로 통역을 이행할 수 있으며, 번역 안에 자신만의 관점과 이해를 넣을 수 있는가. 통역사가 편견 없이, 대화에 기여하지 않고 번역할 수 있는가. 우리는 번역이 가능한 한 중립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가장 좋은 해석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변화의 시간을 거치면서 생각이 잘못 해석되거나 조금 혹은 전부가 변해버리는 혼란스러운 순간들이 있었다. 심지어 나의 모국어인 영어로 대화하면서 번역하고 프랑스어로 그 생각을 나누었을 때도 나는 그 생각의 어떤 부분들이 변한다는 것을 느꼈다.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전달되는 생각의 의미와 하위개념은 완벽하게 보존될 수 없다. 변형이 없는 번역이 가능할 때도 있고 불가능할 때도 있다.

내 리서치 발표를 끝내며 나는 내가 제안한 작업을 통역 없이 해보자고 제안했다. 다 함께 요약해 보는 형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소통하는 방식으로, 언어의 장벽을 우회하기 위해 몸짓과 상징을 이용해서, 서로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생각을 만드는 방법을 시각적 결과로 만들었다. 한 생각의 의미와 하위개념은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넘어갈 때 결코 보존될 수 없다. 번역이 가능한 순간들이 있고 번역할 수 없는 채로 남아 있는 순간들이 있다.

confident

Expérimentation du dessin dans l'espace
Si des mots sont une représentation de la langue parler est ce que on peut faire une représentation des communications de corp
un système de communication pas éphémère et libre des règles et structures imposer
accessible a les gens peu import de les barrières linguistiques

Forêt

은폐하는 말하기

위성희

마르세유에서의 만남 이후 내게 질문들이 생겨났다. 나와 내가 쓰는 언어 사이에 의심이 생긴 것이다. 질문은 답을 가져오기보다는 다른 질문을 물고 오고 또 다른 질문을 물고 오는 한 달을 보낸 뒤였다. 나의 말이 나의 의도를 배반하는 순간들을 자주 목격했다. 내가 뱉은 말은 내 소유, 나의 행위라기보다는 내 앞에 벌어지는 나와 연루된 현상처럼 느껴지기까지 했다. 내가 하는 말은 모두 나의 의도에서 시작된 것일까. 나는 내가 뱉은 말을 모두 알기나 할까. 내 말은 듣는 상대를 위한 건가. 내 말의 의도를 상대가 선명하게 이해하기를 원하는가. 사실 내가 뱉은 말에 나 자신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 내가 말을 다루기보다는 그 말이 도리어 나를 다룬다. 나를 변화시키거나 어딘가로 데려가 버린다. 이번 리서치에는 말과 말하는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이상하고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언어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천천히 변화시키는 과정을 목격하고 싶었다.

제목은 은폐하는 말하기. 발화와 동시에 은폐를 하고 싶은 충동을 가진 말을 하거나, 타인이 아닌 자신을 변화시키는 말을 적극적으로 시도한다.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몸을 위한 워밍업을 했다. '나'라는 고정된 기준점을 흔들기 위해, 말에 따라 더 유연하게 변화를 허용하는 상태가 되기 위해, 그리고 변화하면서도 변화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기 위해서 말이다. 자신 외부에 있는 것(공간이나 사물)의 표면에 자신의 몸을 접촉했다. 외부를 몸으로 듣기도 하고 나의 몸을 들려주었다. 그리고 외부를 통해 다시 내 몸을 스스로 듣기도 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기 전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말이 꺼내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하는지. 예를 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은 순간에 그 말을 들어줄 상대가 있어야 하고, 그 말을 이해해 주어야 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 줄 만한 상황이어야 하고, 이야기를 나누어도 될 만한 공간이어야 하고, 그 사람의 기분이나 컨디션이 너무 나쁘지 않아야 하고, 말하는 자신도 그렇고, 말을 하려는

찰나'이건 말할 만한 가치가 있나?'라는 생각이 끼어들지 않아야 하고, 내가 말하는 동안 다른 사람의 말이 끼어들지 않아야 하고. 듣는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을 참고 기다려야 하고. 그리고 어쩌면 밖으로 꺼내 말을 하고 싶지만 아무도 모르기를 바라는 마음이 동시에 들 수도 있고. 내뱉지 못한 말을 찾거나, 말을 해버리고 싶은 마음과 아무도 그 내용을 몰랐으면 하는 마음이 동시에 드는 말을 찾는다. 한 문장일 수도 있고 한 단어일 수도 있다. 우리는 그것을 찾기 위해 밖을 나가 걷거나, 지나가는 사람 구경하기도 하고, 낙서를 하거나, 초콜릿을 까먹거나, 작업실 구석에서 얕은 잠을 자기도 했다. 그리고 목소리와 손을 대신할 만한 다른 언어, 간단한 움직임을 찾기로 했다. 이 움직임은 말의 의도와 완전히 자의적인 관계를 가지거나, 자신만 눈치챌 수 있는 희미한 연관성을 지닌 움직임을 찾았다.

자신이 찾은 움직임을 10분간 반복했다. 나만 아는 언어로 말하고 혼자 듣기. 십 분간 나도 말하고 듣느라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른다. 10분. 의자를 조금씩 계속 옮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볼펜 심을 넣었다가 뺐다를 반복하거나, 귤껍질을 조금씩 잘라 누운 자기 몸으로 떨어뜨리거나 무언가를 두드리는 사람이 있던 것 같다. 집요하게 단순한 움직임이 반복된다. 조건을 갖추지 못한 말이 이 시간을 채웠다. 몸이 지쳐 움직임의 형태가 바뀌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고 이동이 되기도 했다. 말을 대신하던 오브제가 부서지거나 변형되기도 하고 하려던 말이 바뀌기도 했다.

십 분 동안 말할 때 그 옆에 머물러주는 사람이 한 사람씩 있었다. 그 둘은 청자와 화자의 관계 혹은 관객과 퍼포머의 관계가 아니다. 이해나 관람이 아닌, 아무것도 몰라도 곁에 머물러주는 사람 역할이다. 십 분간 혼자 말하고 듣기를 반복하는 시간이 너무 외롭지 않도록 옆에 있어주는 사람. 아무것도 알지 못해도 말이다.

이런 지루하고 이상한 시간을 기꺼이 함께 한 예술가들께 감사한

마음이 든다. 이 시간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계속 되돌아보고 있는 중이다. 되돌아볼 때마다 떠오르는 장면도, 처음 가졌던 질문에 대한 대답도 계속 바뀌어 가고 있다.

우리 사이의 양분 집합체[1]

Le mycélium entre nous

로이스 라갱
Loïs Raguin

연결된다는 것, 누군가에게? 무엇에게? 나에게? 아니면 당신에게?

나는 누구인가? 나를 바라보는 당신, 내게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고 있는 당신은 누구인가?

혹시 나를 물어뜯을 것인가? 아니면 내게 아이처럼 다가와 어리광을 부릴 것인가?

나의 몸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요소이며 나는 매일 배워 나가고 있다. 마치 나 자신과 혹은 타인과 소통하는 것이 삶의 하나의 지향점인 것처럼.

시선을 어디에 둘까, 시선이란 무엇일까, 귀로 본다는 건? 혹은 피부로, 목으로, 손가락으로, 위장으로 혹은 다른 장기 기관으로, 어쩌면 머리카락으로? 누군가 우리의 몸에 닿았을 때 감각과 전율로 듣는다는 건 어떤 것일까?

내 생각에는 의사소통은 언어에 의해 너무 자주 왜곡된다. 언어도 하나의 창조된 어떤 것이며 진화된 결과물이란 걸 상기해 보자면 말이다.

정의 내리기

Ecouter: 듣다: 말하는 내용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

Dire: 말하다: 언어의 도움으로 표현하는 것.

Parole: 말: 말하기의 요소.

Parler: 말하다:

1. 소리와 말을 발음하다
2. 생각을 단어로 표현하다.
3 기색과 몸짓으로 표현하다.

Communication: 소통: 몇 가지 정의

1. 어떤 것을 통하게 하고 전달하는 행동.
2. 어떤 것을 접촉하고 연결하고 관계를 맺는 행동

나는 내가 연구하고 찾아낸 것과 우리가 함께한 경험을 토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 고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의사소통에서 독점적 지위에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소통, 그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렸거나 잊어버린 소통의 방법들, 잊힌 또 다른 대화의 방법들을 찾는 것이 나에게는 중요하게 느껴졌다.

정의 내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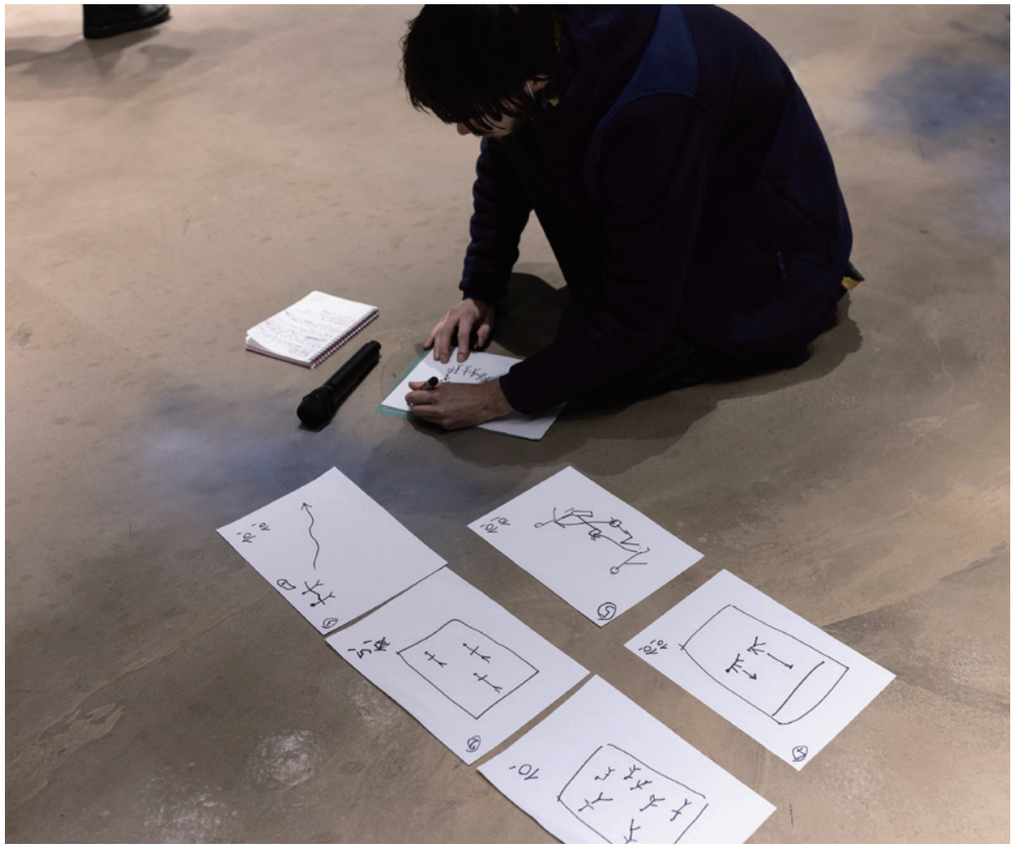
Trésor: 보물: 숨겨져 있었으나 사람들이 찾아낸 가치가 큰 물건.
다 함께 규칙을 정했다. 침묵 속에서 소리 지르기, 작은
손가락으로, 입술로, 혹은 모르는 타인이 이끌어주는 무거운
몸으로.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기, 말하거나 시선을 주거나
만지지 않고.

이 리서치는 나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주었고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되었다. 다양한 작업 공간에서 다른 이들은 이 주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보면서 짧은 일정이었지만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다.

내게 어렵게 느껴졌던 일들을 넘어설 수 있게 해줬고, 경청하기, 언어에 대해 작업하기,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기 같은 과정을 해 볼 수 있어서 기뻤다. 이러한 다양성을 경험하며 그것을 주제로 작업하는 일이 매우 흥미로웠으며 몇몇 다른 이들의 작업과 발표들은 크게 마음에 와닿았다.

우리 각각의 미학과 다름 안에서 좋은 순간들을 보냈던 것에 대해, 함께 했던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1 포자가 관의 모양으로 뻗어서 갈라져 나간 것을 균사(hypha)라고 하며, 많은 균사가 합하여 이루어진, 버섯 따위의 고등 균류의 영양체



마르세유 현장 탐방

마르세유 국립 음악 창작 센터
(La Friche Belle de Mai / Le GMEM)

마르세유 현대 미술관
(Le FRAC SUD)

Diffusion hors les murs
Hautes-Alpes
Alpes de Haute-Provence
Alpes-Maritimes
Vaucluse
Bouches-du-Rhône
Var

SKATEPARK

아트엘

콘셉트·감독
노경애

참여작가
김은설, 박주영, 위성희,
해미 클레멘세비츠(Rémi Klemensiewicz)

코디네이터
김민경

프랑스어 통역
김민경, 편유정

문자통역
황근영,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프로듀서
최봉민

피랩 크레이션

총괄
프랑카 트로바토(Franca Trovato)

참여작가
아리엘 홀츠(Arielle Holtz), 레앙드레 쉐보(Léandre Chevreau),
최나래(Narae Choi), 로이스 라갱(Loïs Raguin)

프랑스 수어통역
아나이스 가부(Anaïs Gabu)

국제교류
아나이스 딜레이지(Anaïs Deleage)

프랑스어 번역
김민경

프랑스어 감수
편유정

사진
김동희

홍보물 디자인
안그라픽스 마바사(안마노, 김지섭)

주최·주관
한국 아트엘, 프랑스 마르세유 미술대학 피랩크리에이션
(Marseille public college for artistics studies-INSEAMM PiLAB CRÉATION)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소후원
(재)서울문화재단 예술청

아트엘(artEL)

아트엘은 몸의 움직임을 시간과 공간에 배치하며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작업 해오고 있다. 새로운 작업의 방법론과 형식을
탐구하면서 다매체 작업으로 확장해 가고 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퍼포먼스, 시각예술, 사운드, 영상, 디자인의 다양한 시선과 방법론이
교차되고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 아트엘의 작업들은 기호·결합과
배치·듣기 등에 관심을 가지며, 움직임· 글자·소리·공간·사물을 통해
실험하고 연구한다. 퍼포먼스와 전시뿐 아니라 리서치 프로젝트를
통해 작업의 과정을 관객과 공유하는 방식을 찾아가고 있다.
artel.imweb.me

피랩 크리에이션(PiLAB CREATION)

2005년 문화부에 의해 시범운영 되는 마르세유 국립 미술원(Beaux-Arts de Marseille)은 청각장애 학생과 난청 학생을 지원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특별한 절차를 시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PiLAB CREATION에 모인 교육활동과
청각장애 학생들이 미술과 디자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PiLAB CREATION은 예술적, 언어적,
사회적 성찰, 청각 장애인과 청각 문화의 실제 조건을 위한 실마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외에도, 언어의 경계, 언어의 다양성과
다공성을 위해 무용, 영화, 글쓰기, 시각 예술 분야의 예술가와 작가의
개입으로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있다.

202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주최·주관
한국 아트엘, 프랑스 마르세유 미술대학 피랩크리에이션
Marseille public college for artistics studies-INSEAMM PiLAB CRÉATION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소후원
(재)서울문화재단 예술청